

02 종합
100원 택시, 전국 82개군 확대
고령·영세 주민 위한 교통 사업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 강화방침
"농촌 마을 교통사각지대 해소"

04 종합
인터넷 전자복권, 카드구매 안돼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발표
장의 경마장 실태 전수조사
로또 인터넷 판매비율 5% 이내

10 금융
연말 인사 앞둔 금융권
여성인원 '유리천장' 깨지나
4대 지주 은행 여성인원 2.8%
여성 등용 확대 기대는 높아

16 중기
코웨이, 아마존 타고 미국서 순항
현지 렌탈 계정 11만개 돌파
주력제품 판매 확대 본격 추진
업계 "내년 수출 10% 성장 예상"

한-중 정상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FTA 확대 등 7개 MOU 체결... 정상회담·국민만찬으로 우의 다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닫고 경제·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국민만찬, 문화공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공식환영식에서 시 주석 내외와 인사를 나누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중국 측은 문 대통령 내외가 현장에 도착하자 환영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공식환영식 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내 동대청으로 자리를 옮겨 정상회담을 했고,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양해각서(MOU)에 대한 서명식이 진행됐다.

각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평창·베이징 동계올림픽 상호 교류 및 협력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협력 ▲보건의료협력 ▲친환경·생태산업개발 분야 협력 ▲에너지협력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 등이다.

특히 청와대 측은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해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서비스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기업의 실질적 보호 강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환경협력계획에 대해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해 내년부터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환경 분야에서 환경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협력한다"며 "미세먼지 대응 등 양국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체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무를 마친 두 정상은 시 주석 내외가 주최한 국민만찬과 양국 합동 문화공연 관람으로 친분을 다졌다. 국민만찬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및 IT, 바이오, 문화산업 관련 기업 대표들

이 참석했고, 한·중 배우커플 추자현·우효광, 배우 송혜교와 배우전수 김연경 등 한류스타들도 다수 모습을 보였다.

국민만찬이 끝나고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공연(한중 문화교류의 밤)'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민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내외가 함께 별도의 문화공연을 관람한 것은 이번이 최다다. 인민대회당에서 양국이 함께 문화공연을 준비한 것도 최조라는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베이징=이성취 기자 noirciel@etomato.com

미국 기준금리 1.5%로 인상 정부 "시장 불안 크지않지만 경계"

이주열 총재 "예상에 부합"
미, 내년에도 3차례 인상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예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향후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불안은 크지 않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미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데 관계당국은 이를 감안해 선제적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 연준은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연방기준금리(기준금리)를 1.50%로 25bp 인상했다. 올 들어 세 번째 인상이며, 향후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점도표에서는 내년에도 세 차례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됐다.

고 차관은 "국내 대외 건전성은 과거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말할 수 없이 튼튼해졌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취약약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 대책을 몇 차례 수립하면서 이에 대비할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다"고 설명했다.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도 그렇고 금리만을 이유로 자본이 유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성장률 등 전망치를 올렸음에도 생각보다 매끄럽(통화긴축 선호)이지 않아 시장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주가는 올랐다"며 "시장 기대에 부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내에서도 FOMC 결과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미 간 금리역전 가능성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상 영향에 대해 "국내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상황, 금융안정과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atrinedec@etomato.com

원전, 2030년까지 24→18기로 줄인다

8차 전력수급계획 국회 보고
노후 석탄발전소 7기도 폐지

현재 24기인 원전이 2030년까지 18기로 줄어든다. 정부는 가장 먼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폐쇄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간의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설비 확충 등의 계획을 담아 2년마다 발표한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계획이 담겼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발표된 이번 계획에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전면에 내건 신정부의 밑그림이 반영됐다. 이날 공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다.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전면 중단된다. 내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10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내년부터 발전설비 계획에서 제외됐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도 점차 줄어든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는 폐지되며 신규 건설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9기 가운데 공정률이

낮은 2곳을 제외한 7기만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당진예고,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원전과 석탄 화력 설비가 줄어든 만큼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늘어난다. 2017년 37.4GW인 LNG 발전 용량은 2030년 44.3GW로, 11.3GW에 불과했던 신재생 발전은 58.5GW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6.2%였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0년에는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LNG 비중도 16.9%에서 18.8%로 확대된다. 대신 45.3%였던 석탄 비중은 36.1%로, 30.3%였던 원전 비중은 23.9%로 각각 줄어든 전망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무역액, 3년만에 1조달러 재돌파

우리나라 연간 무역액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달러를 돌파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올해 수출입을 합한 무역액 누계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이날 14시20분 기준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국 연간 무역액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1조달러 달성에 성공했지만 2015-2016년에는 실패했다.

올해 한국 무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1-9월(누적) 수출 증가율 1위(18.5%), 세계 수출 순위도 전년 대비 2 단계 상승한 6위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올해 9월까지 누적 교역액은 7852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19.2% 상승)로 8위인 영국(7995억 달러)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전년과 동일한 교역 순위인 9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교역 비중은 같은기간 기준 3.3%로 2016년 2.8%에 비해 상승해 최초로 3.0%대 진입 및 역대 최고 교역 비중(수출 비중도 3.6%로 역대 최고)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역대 '무역 1조달러'에 진입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9개 나라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무역 3조달러, 독일은 2조 달러를 각각 넘어섰다.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홍콩, 영국 등은 1조달러 진입국이다.

세종=김하니 기자 hani4879@etomato.com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68곳 확정

사업비 6조7000억 투입...경기도 8곳, 전북·경북·경남 6곳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시범 사업지를 확정했다.경남 통영의 폐조선소 부지, 부산 사하구 천마마을 등 68곳에 약 6조7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스마트시티, 관광사업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

입돼 전국 500여 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지는 총 219개 신청지역 중 사업이 구체화돼 내년에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곳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 실제로 세종시 금남면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연초대비 20% 이상 상승해 제외됐다. 경기도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경북·경남이 각 6곳, 전남과 인천이 5곳 선정됐고 부산·대전·강원·충남은 4곳, 대구·광주·울산이 3곳 순이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과 1곳이 선정됐다.

사업유형별로는 우리동네살리기로 경남 하동 등 17곳이 선정됐고, 주거지원형으로 부산 사하구 등 16곳, 일반근린형으로 대구 동구 등 15곳, 중심시가지형으로 인천 부평구 등 19곳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기반형으로는 경남 통영 1곳이 유일하게 뽑혔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약 6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된 경남 통영시의 '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으로 1조1041억원이 투입된다. 전남 순천시 '꿈미락이 있는 청사뜰' 사업이 7105억원, 충남 천안의 '인경계교통 중심의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사업이 653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비는 광역자치체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50대 50 매칭비율이 적용되고 일반 시·군은 국비가 60%로 높아진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5곳(부산 사하·인천 부평·세종 조치원·경기 남양주·경북 포항)은 추가로 3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자치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됐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고령·영세 주민용 '100원 택시' 내년 전국 82개군서 달린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확장 올해 18개서 4.5배 확대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올해 18개소에서 내년 82개소로 확대하고, 투입예산도 32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농업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도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

(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 시·군비 40%로 변경할 계획이다.

교통모델 운행 방식도 다양화 시킨다. 기존의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도 버스 유형을 셔틀, 콜 등 다양화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운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 밖에 시·군에서 지역 개발 사업 신청 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의 연계계획을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을 넘어 농촌마을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고령자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리 기자 hani4879@etomato.com

운영 주체별 농촌형 교통모델 유형

구분	유형1 100원 택시형	유형1 마을 자조형	유형3 농협 활용형	유형4 비영리법인형
운송수단	택시	버스(셔틀/중형)	버스(셔틀/중형)	버스(셔틀/중형)
대상지역	- 진입도로와 화차공간 부족 - 수요 부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 - 지역의 주민 자치가 활발한 지역	- 일반 노선버스 운행 부족지역 - 지역농협조직 활성화 지역	-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 -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수요 계층 존재 지역
운영체제	- 유상 운송 (1회/인요금 100원-버스요금)	- 유상 운송 (버스요금)	- 유상 운송 (버스요금)	- 무상 운송 (발전기금 또는 지자체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저·중신용자 외면하는 금융기관 고신용자들에 대출 적극적

신용대출금리도 양극화 심화 은행·비은행 금리 격차 3배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가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신용대출시장의 분할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212조8000억원으로 이중 중신용자(4-6등급)와 저신용자(7-10등급)가 각각 67조5000억원(31.7%), 25조4000억원(11.9%)을 차지한다. 고신용자(1-3등급)는 119조9000억원(56.4%) 규모의 대출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신용등급별 차주 수 비중으로 따져보면 고신용자가 48.8%, 중신용자가 35.0%, 저신용자가 16.2%로 고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차주 수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가계신용대출은 2015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2014년중 연평균 2.3% 증가하던 가계신용대출은 2015-2017년 9월중 연평균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양호한 은행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시장의 분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 9월 기간중 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고신용자 비중은 8.7%포인트 늘어난 반면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는 각각 6.0%포인트, 2.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신용등급별 차주 수 비중 변동을 감안해도 유사한 흐름이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금융기관에 따라 적용받는 금리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2017년 9월중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은행의 경우 4.6-7.6% 수준이었지만 비

행권(상호금융 제외)은 13.4-22.5% 수준을 보였다. 금리수준 차가 3배에 이르는 것이다.

한은은 이 같은 가계신용대출시장의 분할 심화와 업권 간 금리격차 지속의 원인을 '정보 비대칭'으로 꼽았다. 차입자의 신용도를 토대로 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신용자의 경우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신용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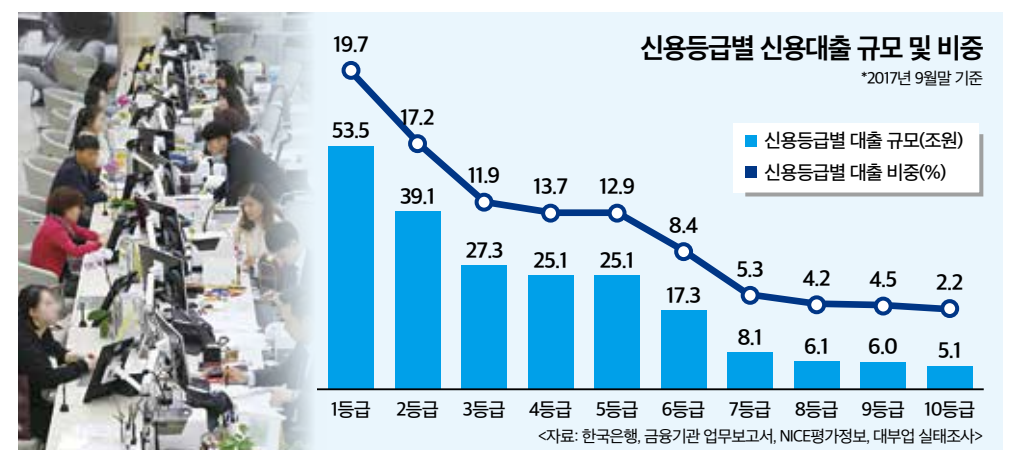
올해 9월말 기준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정보 부족자'로 분류한 사람의 비중은 고신용자의 경우 0.5%에 불과하지만 중신용자는 62.1% 수준이다. 금융기관으로서 중신용 차주의 역선택을 우려해 대출을 기피하거나 실제보다 신용위험을 높게 평가해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등에서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을 설치하고,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점도 이 같은 시장 분할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규제 강화 흐름으로 은행이 자산건전성 악화와 높은 금리 적용시 평판훼손 가능성 등을 우려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였고, 2014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호조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 확대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다.

한은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P2P(개인 간 금융거래) 금융 성장 등 시장의 경쟁요소 강화 흐름이 중·저신용자 차입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더 높은 곳까지,
한국증권금융이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성장 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은 1955년 증권시장의 자금공급과 지원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걷겠습니다.

원전·석탄 비중 줄이고 LNG·신재생은 늘리고

2030년 석탄화력 36.1% > 원전 23.9% > 신재생 20% > LNG 18.8% 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다. 2년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113.2GW보다 12.7GW, 약 11%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원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GW는 통상 발전소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전력이다. 즉 2030년까지 줄어드는 원전이 6기지만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전력 수요가 줄어든 것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감소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GDP 성장률은 전력 수요를 전망하는 주요 변수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약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측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8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을 반영한 결과 GDP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3.0%, 이후 2031년까지는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요관리 계획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이 13.2GW, 전기차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 0.3GW도 이번 계획에 반영됐다. 2030년 전력 수요에 적정 설비에비율인 22%를 더한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로 산정됐다.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 확보가 가능한 전력은 118.3GW며, 이에 따라 필요한 신규 전력 설비용량은 4.3GW로 계산됐다. 정부는 이 부족



주요 발전원별 연도별 변화 추이

발전원	연도		
	2017년	2022년	2030년
원전	247(22.5GW)	277(27.5GW)	187(20.4GW)
석탄	617(36.8GW)	617(42GW)	577(39.9GW)
LNG	37.4GW	42.0GW	47.5GW
신재생	11.3GW	-	58.5GW

분을 액화천연가스(LNG·3.2GW)와 양수발전기(2GW)의 설비용량으로 채울 계획이다.

원전 6기 폐쇄...월성1호기 조기 폐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갈 계획이다.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0년이 되면 18기로 줄어든다. 또 노후 원전 11기는 모두 수명연장이 금지된다. 가장 먼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조기 폐로하는 방

안도 추진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전력수급계획에 월성 1호기의 생산 전력량(0.6GW)을 제외했다. 정부는 추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연구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승인을 거쳐 조기 폐로 정식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전력수급계획은 수급의 안정성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 때문에 2022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월성 1호기는 수급에 대한 기여가 불확실 할 것으로 예상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원전도 수명에 맞춰 운영 기간 연장

없이 폐로에 돌입한다. 정부는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 2027년 한울 1호기·월성 3호기, 2028년 한울 2호기, 2029년 월성 4호기 등을 차례로 폐로할 예정이다.

석탄, LNG로 전환...신재생은 확대

정부는 또 석탄 화력발전소도 점차 줄여나간다. 노후 10기는 조기폐쇄 과정에 들어가고, 6기를 LNG로 전환한다. 또 신규 건설이 예정

됐던 9기 가운데 공정률이 낮은 2기를 제외한 7기만 건설이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석탄 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6.8GW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7기(7.3GW)가 추가돼 42GW로 늘었다가, 2030년 39.9GW로 줄어든 전망이다. LNG 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7.4GW에서 2030년 44.3GW로 늘어난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이 줄어드는 대신 신재생 발전의 비중은 크게 늘어난다. 정격용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발전량은 올해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5배 높아진다. 신재생에너지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태양광은 33.5GW, 풍력 발전소는 17.7GW 용량을 새로 설치해 발전량을 늘린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신재생 전원의 출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2GW 규모의 양수발전소 3곳도 확충할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발전소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목표 수요를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웠다”며 “신규 발전 설비의 경우 대규모 원전이나 석탄 위주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30년 전체 에너지 중 석탄화력은 36.1%, 원전은 23.9%, 신재생은 20%, LNG는 18.8% 순으로 전원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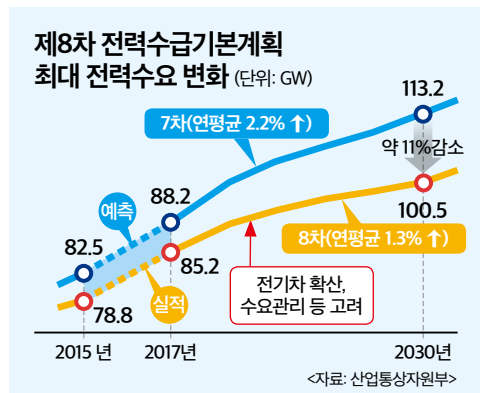
전 정부 '원전', 새정부는 '안전·환경'에 방점

문재인정부 8차 전력계획, '경제-환경' 패러다임 변화

박근혜정부에서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달리 문재인정부에서 마련된 8차 계획은 탈원전·탈석탄을 바탕으로 환경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지난 계획에서 목표했던 원전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감소가 8차 계획에서는 전면 수정됐다.

우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과 국민안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에너지 구성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7차 계획의 경우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 구성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즉 이는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 비중은 앞선 6차 계획은 2027년 22.7%로 전망했지만 7차 계획에서는 2029년 2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신재생 비중은 6차 계획 12.6%에서 7차 계획에는 오히려 1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책관은 7차 계획에 대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규원전 2기를 추가했고, 과거 계획이 일부 진행돼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8차 계획에는 환경에 대한 변화도 반영됐다.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경제급전(전기 공급 과정에서 가장 적은 발전비용을 사용하는 것)’ 중심이던 전력믹스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급전’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됐다. 현재 발전소를 통한 전력 공급은 가장 저렴한 발전 단가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때문에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이 가장 먼저 사용되고, 석탄, 유류,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순으로 전력 생산이 이뤄진다. 하지만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환경급전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경우 이 전력원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8차 계획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LNG 비중이 높아졌다. 박 정책관은 “급전 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친환경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이 확대되는 등 LNG발전기 생산비용 현실화가 추진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8차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이 감소할 경우 정부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는 62%, 온실가스는 2030년 배출 목표 대비 26%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정부 “전기요금 인상 거의 없을 것”

4인가구, 매년 720원 인상 연평균 1.1% 상승 그칠듯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률을 0.1-0.3%의 미미한 수준, 2030년까지 계산할 경우 9.3-10.9%라고 전망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35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5만5000원에서 2030년이 되면 60000원 정도가 더 오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2%에서 20.0%까지 늘어난다. 대신 현재 30.3% 비중인 원자력은 23.9%대로 낮추고 석탄발전 비중도 45.3%에서 36.1%로 줄어든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기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kWh 당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는 원전 68원, 유연탄 73원, 유류 110원, LNG 101원, 신재생에너지(평균) 156원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전력시장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2년 0.3%, 2030년 9.3%(연평균 1.1%)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세제조정 등을 통해 발전소 사이에 비용격차를 줄이면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과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전력구입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것이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신재생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연료비와 물가 변화분을 제외한 것”이라며 “과거 13년 동안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신나라! 땀 흘린 농업인
농기소득 5만만원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틀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틀

힘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누구나, 어디서나 스마트한 금융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틀

대한민국
행복꿈틀

행복꿈틀은 농업인과 국민의 꿈을 키우는 틀이 되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H농협의 약속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전자복권·토토 온라인베팅 한도 축소

정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발표...온라인 결제, 계좌이체만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전자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 등의 일일 구매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카지노와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분야의 합법적 사행산업 규모가 비대해진 점을 감안해 규모를 축소하고 영업환경을 건전화하는 한편 감시·감독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전자복권과 스포츠포토 등의 온라인 베팅 상한선을 50% 줄이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를 막고 계좌이체만 가

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포토의 한도는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회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고 연금복권과 파워볼 등 7종의 전자복권도 한도를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 12월부터 온라인 판매되는 로또복권 역시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인당 1회 5000원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법인판매점(GS25 가맹점 등 641개)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내 9개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외발

매소는 경마장이 없는 지역에서도 스크린 등을 통해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특히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와 같이 '선 폐쇄 후 이전'을 강제할 계획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도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매출총량제도는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총량의 한도를 줄이는 등의 규제를 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매출총량제 설정 기준을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을 초과한 금액을 삭감해 설정하기로 했다. 매출총량제도를 어기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사행산업 이용자에게 일정 액수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지나친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행산업 전자카드' 사용 목표를 올리기로 했다. 전자카드 사용 목표를 한국마사회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체육진흥공단은 20%에서 25%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 총리는 "사행산업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통적 의미의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한다.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형용 모순은 아닌지 고민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a@etomato.com

문 대통령 "한·중 좋은 거래 많이 성사될 것 같은 예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을 만나 "여러분들 모두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기업인의 교류·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오늘 좋은 거래가 많이 성사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맑은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 기업 173개사, 중국 현지 바이어 500여개사 등 총 67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 관계 개선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한류 콘텐츠, 관광 분야 기업들이 다수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를 주최한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에게 "코트라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많이 지원하는데 이제 대기업은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면서 "우리 중소기업 지원에 좀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국의 자본력이 강하다"며 "벤처창업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중국 자본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중점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해 타칭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관 부스를 둘러보며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현대자동차 부스를 방문해 수소전기자동차를 시승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선 부회장과 만나 "중국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 잘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 부회장은 "와주셔서 영광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다"고 답했다.

베이징=이성취 기자 noirciel@etomato.com

내년부터 하천 측량에 드론 활용한다

비용, 항공 측량 절반 수준 연 320억규모 신규시장 창출



내년부터 하천 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이로 인해 연간 320억원에 달하는 공공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하천 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이로 인해 연간 320억원에 달하는 공공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3월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하상 측량 시범사업'에 드론을 도입한 측량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0년마다 하는 하천 지형조사 등에 드론을 투입했을 때 품질(공정별 비용)과 현장 활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13억2000만원을 투입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하천 1225km 구간을 드론으로 측량해 하천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 측량을 본격화한다.

하천 기본계획은 전국의 국가·지방하천 3835개(2만9784km)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계

획을 담은 것으로 국토부는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 지형조사, 하상 변동조사 등을 한다. 이로 인해 새로 창출되는 드론 시장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 변동조사(20억원), 하천 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 관리(100억원) 등 연간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하천 측량에 드론을 활용하면 하

천 1km를 측량할 때 드는 비용이 항공 측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측량 성과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데이터 공동활용 통합 플랫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해 드론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신생기업 4곳 중 3곳, 5년안에 문 닫아

1년 생존율은 62.7% 기록 금융·보험업 생존율 가장 낮아

신생기업 10곳 중 4곳은 창업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6년 기준 기업 생명행정통계'를 보면 2014년 창업해 2015년에도 활동하는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로 2014년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5%로 2014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2012년 이후 소폭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5년 생존율은 2012-2014년 중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 상승 전환했다.

조직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기업의 1·5년 생존율은 각각 61.7%, 26.9%였다. 법인기업은 각각 73.1%, 35.6%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의 생존율이 1년, 5년 주기 모두에

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의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영리기업 중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577만6000개로 2015년에 비해 22만2000개(4.0%) 증가했다.

2016년 신생기업은 87만6000개로 2015년에 비해 6만3000개(7.8%) 증가했다. 신생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소멸기업은 64만개로 2014년에 비해 13만7000개(17.6%) 감소했다. 소멸률은 11.5%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4093개로 2015년에 비해 24% 증가했다. 20% 이상 고성장기업은 건설업, 출판·영상·정보업 등에서 많이 증가했다. 이중 사업자등록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은 1096개로 2015년에 비해 9.8% 증가했다. 이는 2010년(2.5%)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www.kcomwel.or.kr

일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의 희망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

'일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근로복지공단

-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
 -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투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상 및 재활지원**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 요양·재활서비스를 통한 사회·직업복귀 촉진
- 지역병원 운영**
 - 전문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10개 지역병원
- 근로자 복지**
 - 임금체불 사업장 채금금 등 지급으로 생계지원
 - 30인 이하 퇴직연금사업 운영으로 노후생활 지원
 - 생활안정자금 등 근로자 용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군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 법제화”

적폐청산위, 의문사 진실규명·병역비리 근절 방안도 권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9월25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촉식 후 위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거 우리 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의 정치개입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 4개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할 경우 엄중 처벌하고 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규정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적폐청산위는 1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 권고안에는 공직자나 상관이 군에 정치관여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 거부무의와 신고 시 포상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같은 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법에 있다’는 점을 더 명문화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조속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수사독립성 강화 등 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 결정 후 보훈신청·연금 등 후속조치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과거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순직처리를 하지 못한 104명에 대해, 전원 순

직처리를 위한 심사를 추진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적폐청산위는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기타 형평성 제고방안도 제시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체제가 심하다는 의견에 따라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해 소요를 확대하고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강지원 적폐청산위원장은 “국방부가 위원회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분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도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임을 내비쳤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아베, 트럼프 모든 옵션 지지 대화를 위한 대화 필요없어”

홍준표, 아베와 33분간 회동 홍 “일본서 군사훈련 제안도”



북핵 해법 논의차 일본을 방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33분간 회동을 가졌다. 사진/자유한국당 공보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동에서 일본이 북핵과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옵션을 적극 지지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핵 해법 논의차 일본을 방문 중인 홍 대표는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베 총리와 북핵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33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관련) 모든 옵션,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얹어놓은 모든 옵션을 적극 지지한다”며 “어떤 이유로도 북핵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아베 총리와 나는 대화의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이 2가지 결의에 북핵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응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일본 상공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 수행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음을 전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홍 대표가 제안한 전술핵 재배치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현경 기자 ckck@etomato.com

‘문재인정부 싱크탱크’ 정책기획위 오늘 출범

국정과제 점검·보완 기능 환경 변화 시 대안 마련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점검·정책방향 수립 등의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기획위는 15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100명 내외로 구성되는 정책기획위는 기본적으로 지난 7월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 내에 ▲국민주권(정치·행정·사법) ▲국민성장(경제·과학기술) ▲분권·발전(자치분권·균형발전) ▲포용사회(복지·노동·환경) ▲평화변영(외교·안보) 등 5개 분과가 만들어진다. 각 분과위원들은 국정과제 중 시행 환경이 바뀌거나 개선점을 발견하면 상황에 맞게 가다듬고, 대안이 필요할 경우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10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정세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원장에 정세균 성공회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정책기획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 대선기간부터 문 대통령과 함께 해왔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쳐 현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정 교수의 위원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는 “정 교수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완벽히 공유하고 있는

데다 개혁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전문성 있게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월 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정책기획위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 기획하는 위원회”라며 “국정 전반에 걸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유승민 “통합 논의 질질 끌 수 없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4일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통합 이야기로 질질 끌 수는 없다”며 빠른 시일 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유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 달간 자유한국당과는 통합의 대화 창구가 막혀있었지만, 국민의당과는 정책·선거 연대든 통합이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 노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독자 생존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국민의당이나 저희나 창당 이후 지지도가 내려앉고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둘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유 대표와 함께 나란히 부산을 찾아 통합 분위기를 띄웠다. 안 대표는 “외연 확장을 못하는 3·4

당은 어김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3지대를 잇는 정당들이 단순히 선거공학적으로 표만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동참하도록 그들과 그릇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조만간 별도 회동을 통해 통합 선언 시기와 통합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당의 부산시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통합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당 내부 갈등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내 통합반대파 모임인 ‘평화개혁연대’와 ‘당을 구하는 초선의원 모임’(구당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통해 안 대표의 통합 추진을 총력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특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3.0

이사철 가스사고 예방은

막을 조처

아니운서 배지현

가스레인지
철거하거나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

이사 3일전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가스 막음조치 신청!

☑ 도시가스 지역관리소/LPG가스 판매업소/가스전문공사에 의뢰하여 가스 막음조치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2017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6~3.31)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정경유착 편승해 헌법훼손”...안중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구속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안중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명품가방 2점을 몰수할 것을 주장했다. 추징금 4900만원도 아울러 구형했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특검은 “재판기간 내내 최순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재판부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 안중범의 특혜성 지원활동에 대통령의 관여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박근혜와 40년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 정부조직과 민간 기업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따라서 본인의 재산 축적으로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양형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15개 정경연 회원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을 강요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다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순실씨 측은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최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법무부장관 “가상통화 범죄 철저히 수사” 검찰에 지시

다단계 방식 투자금 모집, 거래자금 환치기 우선단속

최근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4일 철저히 수사를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수사를 지시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의 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 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은 투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에 이어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을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 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면서 거래소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에 거래 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월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법원에 불만...“음주운전도 세번이면 구속”

“온정적 신병 처리 안돼” 우병우 영장심사 법원 비판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한 법원 결정에 재차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영장심사가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 일반 서민이나 약자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자유민주주의나 공정한 시장경제 등 헌법 원칙을 문란하게 한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며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사람 모두 당시 최고 권력자”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적 인권 제한 조처인 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되는데,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나 부패 범죄는 엄중한 처리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



세번째 구속 위기에 놓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건에도 실무자나 아래 사람을 구속하면서 지위가 높아 책임이 큰 뒷사람을 주저지, 가족관계 등 이유로 불구속하는 것은 상식이나 법감정에도 안 맞다”며 “특히 사회 지도층, 상류층, 특권층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신병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개입하는 등 군형법 위반(정지관여)·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

략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관사는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룰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지시하고, 정부 여권을 지시하면서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 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고,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다른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서민 구한다는 법률구조공단, 출연금 받고 ‘있는 자’들 대리”

역물하고 돈 없는 서민들의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방만한 기준과 무리한 확장으로 ‘있는 자’들을 대리하는 사실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주최로 1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진우 대한변협 이사는 “구조공단이 조직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이 없는 중산층, 더 나아가 일부 부유층까지 소송구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구조공단의 구조대상 기준인 ‘중위소득 125%’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2017년 현재 4인가구 기준 매월 558만4000원의 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를 버는 사람이 과연 국민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기준 때문에 이 정도 소득을 거두는 사람이 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받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당연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구조공단이 농협과 수협으로부터 막대한 출연금을 받으면서 소위 ‘있는 자’들의 방패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구조공단측은 농협으로부터 1~2년마다 13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왔으며 이를 통해 받은 출연금의 누계는 2015년까지 198억원

에 달했다. 그 대가로 구조공단이 농협 회원들에게 무료로 소송구조를 한 실적은 2015년까지 구조인원 11만 2580명, 구조금액 1조 3696억원(2015년 10월말 기준)이다. 여기에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사건도 포함됐다. 농협과 수협 회원은 누구나 소득수준, 자산수준에 상관없이 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가 있다. 김 이사는 “이는 단순히 농민과 어민을 돕는 순수한 취지의 조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단은 법률구조요건을 간명하게 하고,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기준을 현실화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법률구조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상자 기준 조정에 따라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선 대한변협 등과 연계해 사각지대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종협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돼 법률구조공단에서 형사변호를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정책을 개선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자에게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대한변협 주최로 14일 변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홍선철 부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법인 전환해도 동일 사업장이면 개인 산재보험요율 적용”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부품 조립사업을 하는 A씨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보험요율을 상향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행정심위는 “A씨의 업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자동차부품 조립사업을 행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 유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업체에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사업을 하는 A씨는 2009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산재발생률이 낮아 지난해 인하된 개별실적요율(11.20%)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 왔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법인 명의로 종전 사업장의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단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작업공정이 결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근거로 A씨 업체에 대해 신규업체에 적용되는 일반요율

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 처분하자 A씨는 개인 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사업실태가 법인으로 온전히 이전됐는데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징수하고 있다.

앞서 중앙행정심위는 지난해 8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이를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제해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하 바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긴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만 늘 이긴다는 오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투자에서만큼은
 자산이 적은 사람도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모두가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No.1 ETF KODEX

*운용사 기준 순자산총액, 일평균 거래대금1위 (KRX ETF Monthly 2017.11)

손쉬운 투자 | 편안한 투자 | 과학적인 투자

모두가 이기는 투자

삼성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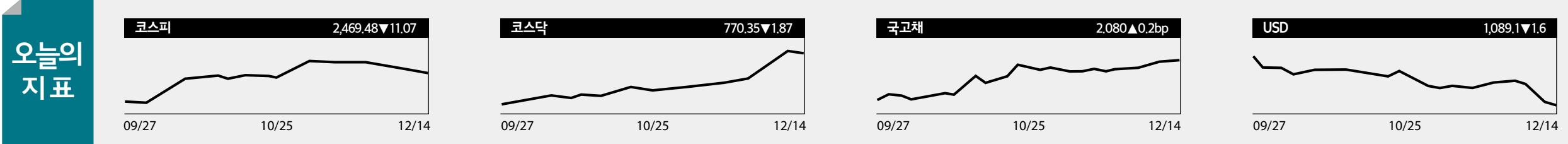
‘모두가 이기는 투자’는 일시적 성과나 테마에 쏠리는 투자를 지양하고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무상황에 맞는 투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삼성자산운용이 제안하는 투자원칙입니다.

사채한 상품정보 확인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번호 제17-03056호(2017.11.26)



<사회책임투자>

SRI펀드 확대...“편입종목 기준 갖춰야”

신규 설정 작년 2개서 올해 31개로 급증...연초 이후 수익률 20%대

사회책임투자(SRI)가 글로벌 트렌드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SRI 펀드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공모펀드의 경우 편입 종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SRI 기업을 선별해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RI 공모펀드는 작년에 단 2개가 신규 설정된 데 반해 올해에는 31개(대표펀드 5개)가 신규 설정됐다. 이들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0%, 6개월 수익률은 7.6%로 높은 편이다. SRI펀드는 재무적인 여건에 더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여 무형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총 25개의 SRI 펀드(클래스 대표펀드 기준)가 운용 중이다. 설정 규모는 알리안자산운용의 '기업가치향상장기펀드'가 954억원으로 가장 크다. 올해 자금 유입이 가장 활발했던 펀드는 HDC자산운용의 '좋은지배구조펀드'로 400억원을 끌어올렸다.

연초 이후 성과가 마이너스인 펀드는 하나도 없다. 마이다스자산운용의 '책임투자펀드' 수익률이 27.89%로 가장 높고, HDC자산운용



SRI공모펀드가 올해에만 31개가 신규 설정되는 등 규모를 키우고 있다. 기업들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이 같은 추세는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뉴스시스

'좋은지배구조펀드'가 24.67%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SRI공모펀드가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책임 정도를 반영하는지와 대형주 중심의 다른 펀드와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설정액 100억원 이상의 SRI공모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ESG등급을 보면 A등급 이상 기업은 25.1%인데 반해 B+이하는 47.3%이며 B이하의 기업 비율도 20%대로 ESG 등급이 낮은 기업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SG등급은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긴 것이다.

홍 연구원은 "SRI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SRI펀드가 사회책임투자라는 목적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편입하는 종목의 기준도 명확히 하고 다른 펀드와는 차별화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3610만원...31.7% 증가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30%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17년 회계부정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에 따르면 올해 신고포상금은 3610만원으로 작년 2740만원보다 31.7%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등에 피해를 끼치고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총 지급금액은 3900만원이었으며, 2014년 1110만원을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과 함께 제보했다.



금융감독원이 지급한 포상금 규모가 제도 시행 후 점차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내년에는 포상금 최고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포상금 금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시스

금융감독원은 이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으며,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지난달 9일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하면서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포상금 지급사태에 대해 개정된 포상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구체적으로 작년 포상금 금액을 한도 상향 후 기준으로 산정하면 2740만원에서 1억2150만원으로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포상금 지급은 올해 11월9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 보호수준 강화를 추진한다.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달부터 회계부서 내에 별도로 내부신고자 보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부동산 정책 마무리...건설주 살아날까

8월 이후 변동성 확대 "시장 소통 강화 방침 긍정적"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둘러 있던 건설주가 본격 반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에 대해 여지를 남겨둔 만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시장 소통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건설주는 지난 달 22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뒤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8월 이후 20% 넘게 밀리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근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지난 12일부터 14일 장 중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마감을 앞두고 조정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건설주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9·5 대책, 10·24 대

책 등 한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 신호를 보냈다. 이에 건설주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함께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폭과 강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력한 규제 우려는 일단락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대책에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을 주는 등 11·29 대책에서 빠졌던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는 방안이 담겼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정부의 1차적인 규제 방안은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면서 "후추 상황에 따라 대책이 추가될 여지가 있겠지만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에서 소통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강조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거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시장 반응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과도

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평가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강력한 카드지만 시장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택지여서 선불리 판단하기 힘들 것"이라며 "후추 상황을 보고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보유세 인상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된 건설주는 향후 실적과 유가 상승 흐름에 주목하며 반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내년까지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데다 부진했던 해외부문 수주도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진성 연구원은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 호조가 지속되며 건설사 분양 실적도 좋았던 부분이 내년도 주택부문에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며 "해외부문은 경우도 손실을 봤던 현상이 마무리 국면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 유가 흐름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미 연준 내년 3차례 금리인상 시사 증권업계 "예상했던 수준"

금리 인상 가속 우려 완화 불확실성 해소, 원화강세 전망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해 국내 증권업계는 예상과 부합했으며, 우려했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조짐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14일 증권업계는 12월 FOMC 후 발표된 성명서와 점도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매파적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13일(현지시간) 연준은 미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올해 3번째 금리인상이다. 앞서 증권업계는 미 연준이 이번 12월 FOMC서 기준금리 인상 단행을 예견했다. 연준이 올해 3차례의 금리인상을 여러차례 시사해, 마지막 FOMC가 있는 12월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가들이 중점적으로 본 것은 내년 금리인상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였다. 앞서 9월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3차례를 시사했으나, 최근 미국의 경제성장률 높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재정 정책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이날 미 연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은 3.9%로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전망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3차례로 유지한 것은 물가상승률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이나, 현재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률에도 물가와 임금 지표가 부진한 것이 3차례 인상 전망 유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금리인상 반대표를 던진 위원도 2명으로 나타났는데,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준) 총재의 경우, 2011년 이후 처음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내년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2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9월 옐런 의장은 물가상승률 부진에 대해 '미스터리'라고 표현했고,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실제 내년 금리인상의 횟수는 2회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시스-AP

또 이번 FOMC 결과로 인해 원화강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아민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점진적 긴축기조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FOMC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2018년 1분기 1050원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며 원화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제품 파월 차기 연준 의장 체계에서는 현재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때때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투표권을 갖는 연준 위원들의 성향이 금년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며 "연준 이사도 지명된 마빈 굿펠드 교수는 저금리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이번 FOMC서 금리인상을 반대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와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대신 매파적인 로라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중도성향의 줄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투표권을 갖게된다"고 우려했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 역시 "일부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중기 경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이르다"면서 "이번 회의의 결과를 통해서 이후 경향성을 예단하기는 이르고, 파월 의장이 목소리를 내는 내년 3월 FOMC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형섭 기자 kalth@etomato.com

한국거래소, 연탄 전달식 개최

저소득 소외계층 겨울나기 500세대에 10만장 전달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은 14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희망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2017년 KRX 행복나눔 연탄나누기'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나눔 연탄나누기는 8년째 이어져 온 행사로 난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부산과 서울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연탄 10만장을 지원하는 KRX재단의 동결기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해당 연탄 10만장은 부산 및 서울지역의 저소득가정 약 500세대에게 동결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특히 올해는 난방비 상승 등 영향으로 저소득가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은 14일 부산 본사에서 행복나눔 연탄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과 허기복 연탄은행전국협의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정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한국거래소와 재단은 인접한 지역사회에서부터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섭 기자 kalth@etomato.com

한·중 관계 개선에도 중국주 '한숨'

컬러레이, 공모가 회복 못해... "차이나 디스카운트 여전"

중국 국적주들이 한중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주가가 짓눌려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시황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 소비주들의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중국 국적주는 여전히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완전히 짓눌린 모습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에 상장된 중국주는 컬러레이, 오가닉티코스메틱, GRT, 골든센츄리, 형성그룹, 크리스탈신소재 등 14개사다.

중국 국적주들은 그동안 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

으로 펼쳤다. 배당을 실시하거나 한국 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서다.

실제 컬러레이는 지난 9월 중간배당을 실시했으며 최대주주가 중간배당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사무소도 설치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컬러레이의 주가는 14일 3465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공모가 3800원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컬러레이는 지난 8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오가닉티코스메틱도 지난 2월 한국 사무소를 열고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는 이날 장 중 3325원까지 밀리며 사상 최저가를 기록 했다. 크리스탈신소재도 꾸준한 실적개선과 배당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300원대까지 밀렸다. 오가닉티코스메틱과 크리스탈신소재는 작년말 대비 각각 29.71%, 33.95% 하락이다.

이밖에 골든센츄리의 주가도 작년 말 대비 41.77% 하락했다. 또 형성그룹(-16.26%), 차이나그레이트(-16.23%), GRT(-26.45%), 로스웰(-24.91%) 등 대부분의 중국 국적주들의 주가가 작년 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증권가는 중국 국적주가 차이나 디스카운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9월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간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호재도 주가에 온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중국 국적의 기업들이 과거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은 아예 제대로된 평가를 못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한중 긴장 완화도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바른 평가를 받으려면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KG이니시스·모빌리언스, "투자자 보호에 최선"

"거래정지, 주가 영향 없을 것... 오늘 재개 예상"



KG모빌리언스와 KG이니시스 화폐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해 14일 주권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KG모빌리언스

KG모빌리언스와 KG이니시스가 주권 매매거래 정지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3일 KG모빌리언스와 KG이니시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14일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14일 KG그룹 관계자는 "이번 이슈는 은행이 발급한 은행조회서 오류 등 회계 담당자의 감사보고서상 단순 기재누락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 2014년~2015년 매출, 손익, 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고 어느 곳도 피해를 본 곳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증선위는 KG그룹 계열사인 KG모빌리언스와 KG이니시스, KG케미칼 등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KG이니시스는 종속기업인 은행 차입금 등과 관련해 결제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계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했다. 과징금 조치는 금융위에서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에 대해 그룹 관계자는 "심사과정이 장기간 진행되던 중 최근 증선위에서 결론이 난 내용"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규정에 의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

상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재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가 하락 우려에 대해 박양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15일 거래가 재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KG그룹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영관리 전반 재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재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겠다"고 밝혔다.

신승희 기자 shw101@etomato.com

비트코인 대책 발표에 안도... 관련주 상승

SCI평가정보 이틀째 급등 '신규 편입' 모다, 14% 올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코스닥 기업들이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규제가 전면 금지보다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CI평가정보는 전일 대비 20.96%(920원) 오른 5310원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 가격제한폭(29.88%)까지 상승한 데 이어 이틀째 급등했다. 모다(14.95%)와 한일진공(15.43%) 등 관련주 모두 상승세다. SCI평가정보는 지난달 28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100% 출자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모다는 새롭게 비트코인 관련주로 편승하는 모습이다. 이날 한 매체는 모다가 가상통화 거래소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코스닥 기업들이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사진/뉴스시스

진공은 공동 투자자인 케이피애틀테크 및 디지털탈옵틱과 가상통화 거래소 KCX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다. 이번 신주 투자로 KCX 최대주인 한일진공의 지분율은 3.3%포인트 증가한 22.3%가 됐다. 디지털탈옵틱 및 케이피애틀테크는 각각 6.4%포인트 증가한 11.9%씩 보유하게 돼 한일진공 및 공동 투자자들의 총 지분율은 46.1%

가 됐다. 이날 디지털탈옵틱과 케이피애틀테크는 각각 10.72%와 4.73% 올랐다.

한편 정부는 미성년자 거래금지 및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긴급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업계는 정부대책에 거래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이 빠진 것에 주목했다.

신승희 기자 shw101@etomato.com

에이디테크, 모바일용 IC 수주 급증

구매주문서 수령 잇따라 내년 양산물량 확대 기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에이디테크놀로지는 SK하이닉스로부터 차세대 메모리 컨트롤러 IC 구매주문서를 수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공시한 36억원 규모의 구매주문서에 이은 성과로 금액은 66억원, 지난해 매출대비 29.1%에 이른다. 구매주문서 수령 후 생산을 시작해 약 3개월 후 납품되는 구조로 내년 2월부터 양산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문 물량이 급격히 늘어 내년도 큰 폭의 양산매출 달성이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구매주문서 수령 후 보름도 안돼 대규모 물량을 연속 수령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매출 대규모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고도화 기반 기술특허와 신제품 개발에 주력한 결과로, 거래처의 제품 호응도가 높다"고 전했다.

에이디테크놀로지의 차세대 초고속 플래시 계열 메모리 컨트롤러는 저전력 기반의 데이터 고속처리와 한 차원 높은 데이터 안정성을 견인하는 등 고품질을 자랑한다.

또, 최근 고성능 스마트폰을 비롯한 최첨단 스마트 디바이스 출시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량의 모바일 저장장치 수요가 높아지면서 스토리지 수요급증이 본격화되고 있어 내년 수요에 대비한 원활한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준석 에이디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고객 수요에 최적화된 대응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 내년 역대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에이디테크놀로지는 2002년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디자인,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에 이르기까지의 일괄수주계약 방식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매출 75억5000만원에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억600만원, 1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신승희 기자 shw101@etomato.com

etomato
tong.etomato.com

가장 쉽고 빠른 증권투자

증권통

국내 1위 증권앱

증권통

삼성전자

시세 주문 뉴스 정보 진단 토론

삼성전자 (005930)

1,893,000 전일 1,901,000

3,000 0.42 시가 1.21 1,878,000

거래량 301,581 고가 0.05 1,902,000

거래대금 567,285백만 원가 1.95 1,864,000

최저 1,456,000(16년 9월 12일) 일봉 2,000,000

증권통 제휴 증권사 (총 12개사)

금융권, 여성임원 '유리천장' 깨지나

4대 금융지주내 비율 2.8%...금융CEO, 여성인재 개발 한목소리



금융권 여성 임원의 유리천장깨기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신한·하나·KB금융·우리·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금융권 연말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성 임원의 유리천장 깨기가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최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여성인재와 능력 중심의 인사를 천명하면서 인적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신한·하나·KB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 상무 등 전체 임원은 1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 임원은 총 5명으로 2.8%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금융, 신한은행에서는 여성 임원이 부재하며, 하나금융과 KEB하나은행에서는 임원 53명 중 차은영, 황덕남 사외이사만 여성이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사외이사로 김유니스경희 이화여대 교수와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선임했다.

하지만 금융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할 여성 임원은 박정림 국민은행 WM그룹 부행장 및 KB증권 WM부문 부사장 뿐이다. 또한 박 부사장의 경우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여성임원은 기근 상태에 직면했다. 다만 임원 인사를 앞둔 금융권 CEO들이 '유리천장 깨기'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여성 임원의 중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첫발을 내디딘 곳은 농협금융이다. 농협금융은 지난 6일 연말 인사에서 장미경 농협은행 국제업무부장을 농협은행 부행장으로 발탁했다.

오는 22일경 본부장급 이상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우리은행 또한 여성인력 동용에 나설 방침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는 지난 13일 행

내 방송을 통해 능력 중심의 승진과 인사이동 등 앞으로의 인사원칙과 방향을 공개했다. 특히 역동적인 조직을 위해 70년대생 이후 젊은 직원과 여성인력을 본부부서장 및 본부부서 팀장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허인 국민은행장 역시 여성 임원 비중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힘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오는 15일 정기 인사를 앞둔 BNK금융에서도 여성 인재가 임원 승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지완 BNK금융회장은 지난 11월 '그룹 CEO특강'을 통해 "BNK금융이 금융 산업의 유리천장을 깨는 퍼스트 무버(First-Mover)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MG손해보험, 유상증자 부결 강제 매각 수순 밟을 듯

새마을금고 "회수 어렵다" 반대 리파이낸싱도 불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가 14일 MG손해보험에 대한 450억원 규모 증자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강제 매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MG손보와 대주주 자베르파트너스가 자산매각, 임원 연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했지만 증자를 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MG손해보험 증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와 부결됐다"며 "매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450억원 증자가 막히면서 RBC비율 150% 유지가 힘들어 리파이낸싱도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애초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서 450억원 증자를 받아 RBC비율을 올려 대주주에게 리파이낸싱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농협은행(4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새마을금고(300억원)의 의사에 따라 강제매각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주주는 지급여력(RBC)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지면 안된다는 약정 조항을 내세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증자를 받

지 못하면 강제매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당초 이날 증자가 확정되면 자베르파트너스 2호SPC에 대한 900억원 규모 대주주의 대출금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과 증자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리파이낸싱 주관사는 DB금융투자다. 자베르파트너스 2호SPC는 2013년 2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자베르파트너스가 1800억원 규모로 그린손해보험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설립된 MG손보를 보유하고 있다.

리파이낸싱이란 자금 차입자가 대출규모, 금리, 상환기간 등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금리 하락, 담보가격 상승 등 차입자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MG손보의 경우 RBC비율 150% 유지가 가장 중요한 약정 조항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자 부결로 MG손보가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MG손보는 자본적정성 지표가 최악인 상황이다. 지급여력(RBC) 비율이 지난해 말 133.6%로 금융 당국의 권고기준(150%) 밑으로 떨어진 후 올해 3월 말 118.7%, 6월 말 121.4%, 9월 말 115.9% 등 4분기 연속 권고기준을 밑돌고 있다. RBC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보험사는 도산이 된다.

MG손보 관계자는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해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I · SEOUL · U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공사비가 부담돼요!

공사비를 저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최대9천만원, 이자 2% 보조)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전문가가 찾아가 상담해 드립니다
(공사범위, 지원제도 등)

직접 고쳐 살고 싶어요!

집수리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집수리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 02-2133-1216) [집수리닷컴](http://jibsuri.seoul.go.kr) (http://jibsuri.seoul.go.kr)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날 11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의 핵심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소비자 보호 강화에 방점

**보험조직, 금소처로 배치
금융그룹감독실 신설**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균형 있게 수행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은 '2018년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각 권역 별로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확대해 사전적·적극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감독·검사 부서에서 소비자권익의 제고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민원처리·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하고 금융포용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금소처 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와 불법금융행위 피해예방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토록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이 금소처 산하로 편제된다.

금감원은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매트릭스 형태로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수석부원장 산하 '업무총괄' 부문

을 '전략감독' 부문으로 개칭하고 금융그룹감독실, 자금세탁방지실, 연금금융실 등 모든 권역에 걸친 기능별 부서를 '전략감독' 부문에 신설·이동 배치해 통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영업점 검사는 기관별검사국이 일괄 수행하고 부서·팀 단위 조직 통·폐합 및 비효율 부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를 폐지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팀 단위 조직 통·폐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로운 조직도 신설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이 예방 등을 위한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되고 테크 성장 지원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해 조직 내에 분산된 관련 기능·조직을 통합해 '핀테크지원실'이 새로 생긴다. 이 밖에 인사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무국에 소속된 인사팀을 '인사지원실(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 3명인 선임국장 수를 2명으로 축소하고 소관업무를 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후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연수익 7~9% 태양광 투자 인기...최대 25년간 안정적 수익

100kW 분양시 월평균 250만원 매출...간접투자시 관련 펀드와 협동조합 방식 가능

최소 투자금액 2억원대에 연 수익률 7~9%를 낼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투자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분양받을 경우 최대 25년까지 장기간 시설 교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어 기존 부동산투자보다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허가 경험이 많은 태양광 발전을 시공 사업자를 선택하고 현지 토지가격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소 올해 20% 성장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태양광발전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태양광발전 동향에 따르면 올해 국내 태양광발전 내수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20% 확대된 1200M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의 경우 2000MW로 급성장한 후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역시 현재 전기생산 비용이 4%에 불과한 태양광발전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100kW 분양시 월 250만원, 연 3000만원의 매출 기대

현재 태양광 발전 시공사를 통해 100kW를 분양받을 경우 평균 2억1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의 투자비용이 들어간다. 100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

를 운영할 경우 월 250만원, 연 3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태양광발전의 수익원은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다. SMP는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파는 것을 말하며, REC는 18개 대형 발전사에 생산전기를 공급할 때 받는 수익금이다.

업계 평균적으로 100kW의 용량을 설치하고 매일 평균 3.6시간 발전을 진행했다고 가정하면 1만8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1kW당 80원인 SMP에 대입할 경우 86만4000원, 1kW당 127원인 REC에 대입할 경우 164만6000원 등 총 250만원의 월매출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시설 보수유지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면 연평균 7~9%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임대와 달리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공실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태양광발전의 경우 한국전력 등 확실한 전력 매입 주체가 있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태양광 펀드와 협동조합 방식 단기·소액투자 가능

단기 수익을 낼 수 있고 적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태양광 관련펀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지난 7월 진행

한 태양광발전소 투자펀드의 경우 모집 55분 만에 총액 1억8000만원이 전액 마감됐다. 이 펀드는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에 약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 루트에너지는 발전소 건설비를 자체 개발한 재생에너지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루트에너지'를 통해 모집했다.

이 펀드는 12개월 만기에 예상 수익률 7.5~8%(세전)였다. 투자금액은 10만~500만원이며,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연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이어 P2P금융 업체인 8퍼센트가 출시한 태양광 사업 투자상품의 경우 출시 3시간 만에 2387명의 투자자 참여해 완판됐다. 태양광 에너지 기업인 에스파워(S-Power)에 투자하는 이 상품은 연 수익률 5.9%, 총 모집금액 6억원, 만기 12개월이다.

협동조합 방식도 인기다. 이 방식은 일정 금액을 출자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매년 사업 결산기에 당기순이익에서 일정액을 배당 형태로 돌려받는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최근 2~3년간 조합원들에게 매년 배당하는데 수익률이 연 4~5%대다. 조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가입 제한은 없으며 최소 출자액(가입액)이 5만~10만원 선이다.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지

태양광발전 투자 장점과 유의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kW 투자 시 2억원대 초반 자금으로 연 7~9% 수익 가능. • 한국전력 등 안정적 전기 수입원. 오피스텔처럼 공실률 부담 없음. • 최대 25~30년 수익 가능. 유지보수비 비용 저렴.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업력 많은 시공, 분양사 선정 필요. • 지자체 인·허가 발급 지연 또는 지역주민 반발 시 사업 지연 가능성 존재. • 일조량 풍부하고 일정한 풍향 있는 부지 선택해야. • 토지가격이 평(3.3m)당 5만원 이상이면 수익성 감소.



만, 출자금을 돌려받는 것은 매년 결산이 끝난 후에 가능하다.

분양 시 시공·운영사 선정, 부지 선택 등 꼼꼼히 따져보아야

다만,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소 투자 시 시공사와 운영사 선정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경험이 부족한 시공사를 선택할 경우 지방시도단체의 인·허가 발급이 늦어지고 일부 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점도 사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기승 트윈스쿨라 대표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인·허가 발급 경험이 없는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주

민들이 반발할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를 발급받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조량이 전력생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지 선택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 광주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도씨는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부지는 일조량이 풍부하면서도 냉각에 필요한 일정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넓은 평지에 인근에 하천이나 저수지가 있는 곳이 적합하다"며 "분양받을 부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면 면밀하게 따져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가격이 평(3.3m)당 5만원 이상인 곳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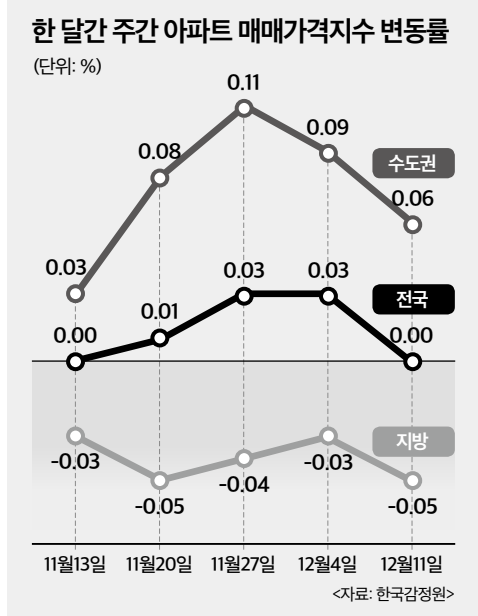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12월 2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주춤

강남권 피로감에 상승폭 축소 성동구 재개발 완료로 0.41%↑

12월 2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절적 비수기와 금리상승 부담, 가격상승 피로감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됐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과 재건축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은 12월 4주(12월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은 강남권(0.24%↑)의 매매가 상승률이 강북권(0.09%↑)을 웃돌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남(0.36%↑)·송파구(0.44%↑) 등 강남4구는 가격상승 피로감으로 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천구(0.38%↑)도 목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 발표 연기로 상승폭 축소되는 등 앞서 상승폭이 컸던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강북권은 성동구(0.41%↑)가 재개발사업 완



료와 진행으로 선호도 높은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광진구(0.39%↑)는 역세권 인기단지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0.01%↑)는 3주 연속 동일

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인천(0.00%↑)은 상승세에서 보합세로 전환됐다. 경기의 경우 성남분당(0.22%↑)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안양동안과 과천은 각각 전주보다 0.07%, 0.03% 상승했다. 전국 시도별로 대전(0.16%), 전남(0.06%), 대구(0.03%) 등은 상승했고, 인천(-0.26%)과 세종(0.00%)은 보합, 경남(-0.26%), 충남(-0.14%), 경북(-0.14%) 등은 하락했다.

공포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해 대비 상승 지역(87→74개)과 하락 지역(74→65개)은 감소했고, 보합 지역(15→37개)은 증가했다. 전세가격은 국지적으로 상승한 곳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절적 비수기와 더불어 신규 입주물량 증가, 매매시장 위축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여력 둔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 세종(0.20%), 광주(0.05%), 전남(0.04%), 서울(0.03%) 등은 상승했고, 대구(0.00%), 충북(0.00%)은 보합, 경남(-0.24%), 충남(-0.18%), 울산(-0.12%) 등은 하락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재테크 신상품

더케이저축은행
취약계층에 최대 5.7% 금리 적용

하나금융투자
하나UBS자산운용과 콜라보 펀드 출시

더케이저축은행은 지난 1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연 5.7%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더(The)사랑나눔정기적금'을 출시했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금 약정금리에 2.5%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12월 기준 더케이저축은행의 정기적금 약정금리는 12개월 이상 2.5%, 24개월 이상 2.6%, 36개월 이상 2.7%이며 이번에 출시되는 신상품은 12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용상품인 'n-The사랑나눔정기적금'은 동일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가입 시 3.0%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The사랑나눔정기적금은 더케이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나UBS자산운용과의 콜라보 상품인 '하나UBS글로벌4차산업1등주플러스펀드'와 '하나UBS중국1등주플러스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하나UBS글로벌4차산업1등주플러스펀드는 글로벌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20개 내외의 종목에 선정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하나UBS중국1등주플러스펀드는 중국에서 유망한 소비재, IT, 헬스케어 업종 등에서 1등주만을 골라 수익을 추구한다. 운용전략과 편입할 종목들의 선택에 대한 자문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맡게 되며, 하나UBS자산운용은 투자한 종목들의 추가흐름에 맞춰 편입비중 조절을 담당한다. 두 상품 모두 연말까지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금융
자격증

0원

지금 토마토패스에서는
수강료가 무료!!

- 투자자산운용사 현금환급반: 269,000원 → 0원
- 자산관리사(은행FP) 현금환급반: 199,000원 → 0원
- 신용분석사 현금환급반: 229,000원 → 0원
- 외환전문역 현금환급반: 139,000원 → 0원
- AFPK 현금환급반: 219,000원 → 0원
- CFP 현금환급반: 499,000원 → 0원

* 현금환급반은 수강료 선결제후 합격시 현금해드리는 과정입니다. (환급시 제세공과금 및 교재판매비는 제외)

tomato 패스
www.tomatopass.com

금융투자자격증
증권/펀드 투자권유대행인
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은행/보험자격증
자산관리사(은행FP)/은행텔러
신용분석사/외환전문역
보험심사역/변액보험판매관리사

FPSB자격증
AFPK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AFIE(금융상품분석사)

회계/무역/경제
전산회계/전산세무
국제무역사/무역영어
TESAT/MK TEST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문, GWI 발표기준)

경총, 강경입장 고수...배경엔 위기감

정부, 재계 통로로 상의 낙점...경총은 패싱, 차기 회장 인선도 난항



박병원 경총 회장이 지난 6월 일자리위원회를 만났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배경이 주목된다. 박병원 회장이 내년 2월 퇴임을 시사한 데다, 후임을 찾기도 어려워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황. 때문에 선명한 입장의 배경에는 존재감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농단 사태에 목소리를 잃으면서 재계 이해를 대변할 단체가 경총 하나로 좁혀진 데다, 노사관계 전문 경제단체로서의 위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14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눠 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하는 잠정합의문을 도출했다. 여당 반대 가거세 실행은 어려워 보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경총은 이보다 더 욕심을 냈다.

한동안 정부의 노동정책에 말을 아꼈던 경총이었다. 정부가 경영계 입장을 듣는 통로로 상의만 찾으려던 급기야 ‘경총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최근 경총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경총 관계자는 “상의에 비해 노사관계 전문성이나 노하우면에서 경총이 앞선다”며 “양대 총회의 파트너인 경총이 현안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는 내부 다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총은 1970년 출범한 노사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단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부터 교섭에 참가했고, 1998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참여했다. 노동 분야에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였지만, 현 정부 들어 위상이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침체됐다. 최근 이 같은 기류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다. ‘주장도 못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박 회장 퇴임 이전까지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2010년 동양화학 출신 이수영 4대 회장이 퇴임한 뒤 기업인 출신 회장의 명맥도 끊겼다. 이회범 5대 회장도 박 회장은 관료 출신이다. 기업인이 경총 회장을 꺼려해 외부에서 추대됐다. 특히 노동계의 목소리에 무게를 실는 문제인정부에서 경총 회장 자리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경총이 주로 노동계와 경영계간 갈등이 큰 현안을 다루다 보니 외부와의 마찰도 잦다. 그나마 신춘호 농심 회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허마평에 올랐으나, 이 회장의 경우 갑질 논란으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경총 관계자는 “2월말 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가봐야 (후임 인선도)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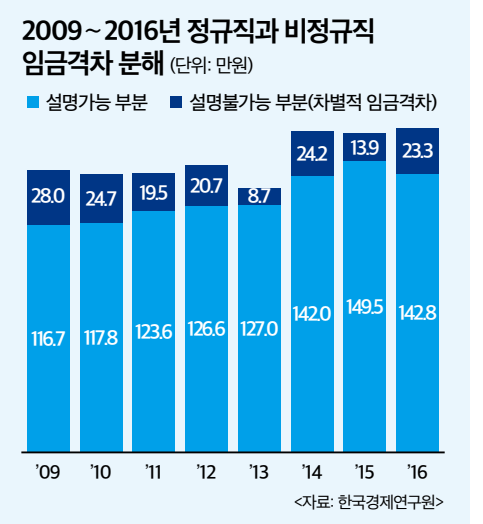
정부 “심화” 재계 “축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정부는 10년새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으며 양극화에 주목했다. 하지만 재계는 차별로 볼 수 없는 임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부분만 따지면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이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9~2016년 자료에 기반해 상여금을 포함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월급여 기준 23만3000원으로 2009년 28만원보다 낮았다. 여기서 차별적 임금격차는 경력연수, 사업체 규모 등 차별로 볼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한 실질적 격차를 의미한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총 임금격차는 166만1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142만8000원은 설명이 가능한 근로자 특성 때문에 발생했고, 14%인 23만3000원만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임금격차라는 제한적인 주장이다.

근로자의 특성으로는 총 임금격차의 18.7%를 차지하는 경력연수를 비롯해서 사업체 규모(14.9%), 근로시간(14.0%), 교육수준(11.3%), 직업군(9.9%) 등이 꼽혔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실제적인 격차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최근 10여년 사이 두 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11일 내놓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156만5000원)보다 127만8000원 많았다. 관련조사 집계를 시작한 2004년에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177만1000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115만2000원으로 임금격차는 61만9000원에 그쳤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신동빈의 뉴롯데 ‘풍전등화’ 오너 중형 구형에 ‘패닉’

뇌물죄 4년 추가구형 1심 선고 앞두고 초긴장

신동빈 회장에게 있던 중형이 구형되며 롯데그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구형을 받았던 신 회장이 이번엔 ‘최순실게이트’ 연루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5억원 구형까지 추가로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14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신 회장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제 신 회장은 운명의 2-3주에 돌입하게 됐다. 당장 일주일 뒤인 22일엔 횡령, 배임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1000억원의 구형받은 것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1심 선고 역시 3주 이내에 열릴 전망이다.

신 회장이 경영비리와 최순실게이트 연루 혐의 모두 중형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돌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롯데는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 이후 기업이미지가 실추되자 롯데를 ‘오너일가의 기업’이 아닌 ‘공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부단

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신 회장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같은 혁신 작업도 울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이외에도 일본과의 경영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크다. 일본 기업문화 특성상 ‘도덕적 해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만큼 신 회장이 일본롯데호텔링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수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롯데호텔링스(지분율 19.07%)가 등을 돌릴 경우 호텔롯데 상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 신 회장이 야심차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해외사업도 위태롭게 됐다. 의사결정자인 신 회장이 부재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사업들도 담보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유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인도와 미얀마에는 식품 부문에 2억5000만달러를, 베트남에는 20억달러를 투자해 복합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재계에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이 모든 작업이 불거뿔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온다.

최대고비는 오는 22일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이다.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징역 10년, 추징금 1000억원)과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은 황각규 사장에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만큼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새로 출범한 롯데지주의 대표이사 자리는 공석상태가 불가피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가 오너의 잇단 중형 구형으로 정기인사와 내년 글로벌 경영계획 수립 등 중대한 일정에 모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이광표 기자 pyoyou81@etomato.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홈페이지 www.myasset.com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펀드레이더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스마트폰 내년 역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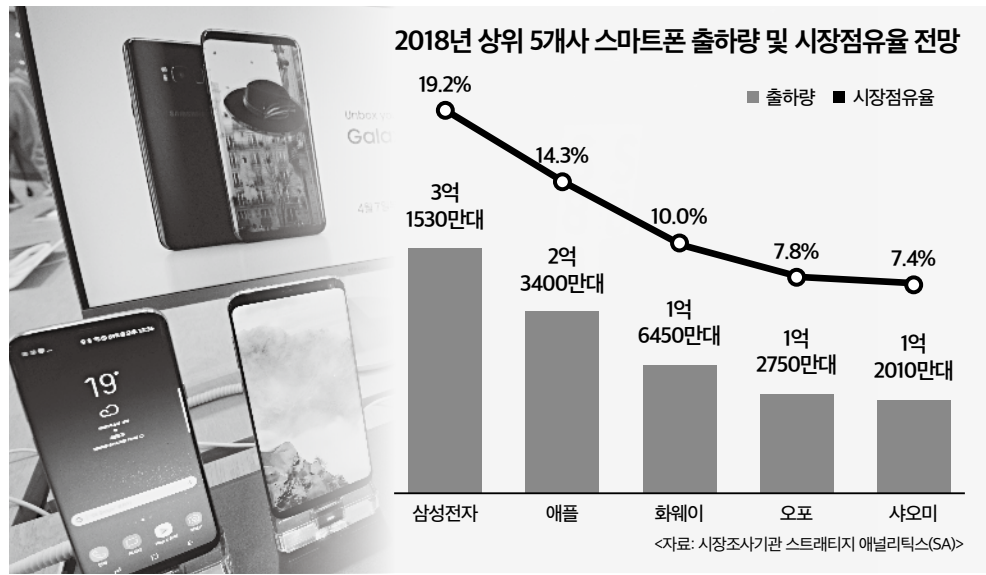
점유율 올해 20.5%서 내년 19.2%로...애플·중국 사이 ‘진땀’

삼성전자가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대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1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애플과의 경쟁이 한층 더 격화되고, 중저가 제품군에서는 중국의 공세에 치이면서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1980만대로, 시장점유율은 20.5%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출하량이 3억1530만대로 감소하면서 점유율도 19.2%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이다. 시장 1위는 유지하지만, 점유율은 10%대로 떨어지면서 상위 5개 업체 중 유일하게 역성장이 예고됐다.

삼성전자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6년(3억940만대·20.8%)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애플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영향이 크다. SA는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애플, 중저가 제품군에서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애플은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2억1810만대에서 내년 2억3400만대, 점유율은 올해 14.0%에서 내년 14.3%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화웨이의 출하량 예상치는 올



해 1억5600만대, 내년 1억6450만대다. 점유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점유율이 7%대였던 화웨이는 지난해 9.3%까지 상승했다.

오포 등 다른 중국 업체의 성장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오포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1억2190만대, 내년 1억2750만대로 소폭 상승이 점쳐졌다. 점유율은 올해 7.8%로, 내년도도 같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샤오미의 출하량은 올해 9570만대에서 내년 1억2010만대, 같은 기간 비보는 9270만대에서 9890만대로 상승이 예상됐다. 점유율도 올해 각각 6.1%,

5.9%에서 내년 7.4%,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SA는 “중국 제조사들의 강세는 가성비를 무기로 세계 1, 2위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과 인도에서 공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전망”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수정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중국 제품의 고사양화에 대응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방송분야 협회장 낙하산 그만”

방송업계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협회장 인선에 주목하고 있다. 협회장 자리는 민간단체에도, 그간 정치권의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안팎에서는 정치권 낙하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추고 업계 이해를 대변할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다.

1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유료방송협회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강대인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된다. 강 전 위원장은 김대중정부 시절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 부위원장장을 거쳐 방송위원장, 국내 언론홍보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방송정책의 전문성과 학자로서의 통찰이 있는 인물로, 든든한 내부 지지를 받고 있다.

케이블협회장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자리였다. 윤두현 전 회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케이블방송 협회로 왔다. 이후 취임 1년도 안 돼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했다. 후임인 배석규 전 회장을 6개월 정도 남긴 지난 9월 돌연 사임했다. 그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YTN 사장을 역임한 만큼 정권교체에 부담을 느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IPTV방송협회장 역시 조선일보 출신 이종원 회장이 임시로 맡고 있어, 후임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정아 KBS 아

나운서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여기에도 정치적 외풍이 문제다. 김인규 초대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이고, 지금의 이 회장 역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사퇴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이 내정됐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IPTV협회 관계자는 “현재 이 회장이 2년 임기 후 연임하고 있으며 차기 인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도 차기 회장을 물색 중이다. 홈쇼핑협회는 1년마다 홈쇼핑 대표들이 돌아가며 회장직을 맡는다. 지난 2016년 6월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선임된 이후로 후임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홈쇼핑협회 관계자는 “매년 중하순 정도에 협회장 선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협회장 자리에 정치권 인사가 아닌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오길 바라고 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장 공모부터 면접까지 독립성을 갖춰야 하지만, 전례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한 관계자는 “정권도 교체된 만큼 구태를 벗고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사진/삼성디스플레이

OLED 시장, 한중일 격돌 ‘예고’

삼성·LG 왕좌 ‘위협’

OLED 패널 시장에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질 전망이다. 중소형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대형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독주 체제지만 중화권과 일본 업체들이 속속 가세하며 향후 구도를 경쟁체제로 몰아넣고 있다.

14일 대만 경제일보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대만 OLED 업체인 다윈정밀공업, 관쉬안과기공사 등과 협력해 중소형 OLED 개발에 나섰다. 애플이 대만 기업들과 중소형 OLED 개발·양산에 성공하면 아이폰X에 OLED 패널 전량을 공급하는 삼성디스플레이

로서는 최대 고객을 잃는 동시에 시장지배력도 약화될 수 있다.

중국 BOE도 내년 애플에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기 위해 분주하다. 올 하반기 BOE의 첫번째 6세대 OLED 공장인 B7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 플렉시블 OLED를 생산할 예정인 B11과 B12에도 월 3만~4만5000장의 생산설비를 갖추도록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CSOT, 비전옥스, 에버디스플레이 등도 중소형 OLED 양산 라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IHS마킷은 중국 기업들의 중소형 OLED 점유율이 오는 2022년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LG디스플레이의 독무대인 대형 OLED 패널 시장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추세다. 일본의 재팬디스플레이와 소니, 파나소닉 등이 공동 설립한 JOLED는 최근 대형 OLED 패널 양산에 돌입했다. 다이경우 샤프 사장은 최근 한국의 삼성·LG를 겨냥해 “OLED 패널 일본 연합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로서는 중·일의 추격이 본격화될 경우 일정 부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중소형 OLED 패널은 지난 3분기 기준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세계 시장의 98% 이상, TV용 대형 OLED 패널은 LG디스플레이가 99%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현재 각 업체의 기술 및 설비 부족으로 OLED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지만, 중국과 대만, 일본이 OLED 패널 투자에 가세하면서 수급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 격차가 커 시간을 벌여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일본 업체들이 대형 OLED 부문에서 안정적 수율을 내기 불가능하고, 중소형 OLED의 경우 중화권 업체들이 애플의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내년부터 공급사로 선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고객사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SKT·KT 5G기술, TTA 표준 채택

5G 통신기술 상용화 성큼

SK텔레콤의 5세대(5G) 통신기술이 14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기술로 채택됐다. 하루 앞선 13일에는 KT의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오케스트레이션이 TTA 표준으로 선정됐다. 5G 기술 상용화의 경쟁도 뜨거워졌다.

SK텔레콤의 5G는 프런트홀 기술이 기반이다. 5G 기지국은 중앙장치와 안테나를 포함하는 분산 장치로 분리되는데 두 장치를 연결하는 유선망이 프런트홀이다. 5G는 LTE에 비해 초고속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고, 수용해야 할 데이터 용량도 크다. 때문에 가입자로부터 무선 데이터 신호를 수신해 이를 중앙장치로 전송하는 프런트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박진호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은 “데이터 전송 용량이 커지고 서비스 수가 급증하는 5G 시대에는 개방성에 기반한 프런트홀 규격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 5G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에는 KT의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오케스트레이션이 TTA 표준기술로 선정됐다.



이동준 KT 네트워크부팀장이 지난 13일 열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92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평창 5G 규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KT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오케스트레이션은 통신망 사업자의 가상화된 인프라를 최적화한다. 각 5G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난해 9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G 표준 중 하나로 채택된 바 있다. KT는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5G 시범무대로 삼는다. 전홍범 KT 인프라연구소장은 “5G 초기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ICT 업계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행복한 노후!

방문요양 우수기관 힐링재가요양센터가 함께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분들을 1~5등급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댁에서 수발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힐링재가요양센터(기관)에서는 등급판정부에서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체크하여 도와드립니다.

장기요양 등급 종류

<p>1등급(최고 중증)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p>	<p>3등급(중증)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p>	<p>5등급(저매출별등급) 치매환자</p>
<p>2등급(중증)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p>	<p>4등급(중증)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p>	

방문요양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힐링재가요양센터 (02-356-8871~2)로 문의주세요.

현대차, 인도 시장서 1위 추격전

i10·i20 등 인기 소형차 파격 할인...대대적 프로모션 실시



현대차의 i10(왼쪽)과 i20. 사진/현대차

최근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인도시장에서 자동차업체들이 연말을 맞아 파격 할인에 돌입하며 판매량 증대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도 이에 동참해 i10 등 인기있는 차량 위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인도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6% 포인트에 달한다. 지난 10월 기준 인도시장에서 마르티 스텝키가 44.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차가 17.9%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14일 인도 영자신문 인디안 익스프레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마르티 스텝키와 현대차, 폭스바겐, 타타 자동차 등이 이달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i10과 i20, 엘란트라 등 인기있는 모델 위주로 최소 4만 5000루피(약 76만원)에서 최대 9만루피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의 엔트리 해치백 모델 이온(Eon)과 엘리트 i20, 액티브 트림의 경우 5만5000루피 저렴해졌다.

특히 i10에 대해 파격 행사를 진행한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경차와 소형차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현대차의 경우 소형차 i10과 i20,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레타(Creta)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i10의 올 1-10월 누적 판매량은 12만8543대로 콤팩트 부문에서 판매량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 1위인 마르티 스텝키도 해치백 차량인 알토(Alto), 왜건(WagonR), 셀레리오(Celerio), 스위프트(Swift) 등을 최소 4만루피에서 최대 8만5000루피까지 할인해준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해치백인 이그니스와 세단모

델인 시아즈(Ciaz)와 다목적 자동차(MPV)인 에르티가(Ertiga) 등도 할인 대상이다.

내년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1.2% 성장을 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는 예외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 320만대에서 내년에는 8.7% 증가한 348만대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보급률은 1000명당 32대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현대·기아차에게 있어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보성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이사는 “인도시장이 2020년대가 되면 2위의 중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곧 세계시장 3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은 향후 인도시장에서의 성장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폭스바겐, 내년 신차 공개로 지각변동 예고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폭스바겐 차량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달 17일 첫 출시 간담회
신형 티구안 등 국내 판매 시작

아우디코리아에 이어 폭스바겐코리아가 다음달 신차 출시 행사를 열고 내년부터 국내 판매를 재개한다. 올해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한 폭스바겐 다시 시장에 진입하면서 내년 수입

차 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이 주춤한 사이 두각을 나타낸 토요타 등 일본차들은 더욱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국내 시장 복귀를 앞둔 만큼 독일차 브랜드 간의 양강구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14일 “다음달 17일 신차 공개 발표회가 예정된 상태”라며 “이 자리에서 새해 판매 계획과 전

략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들어 여는 첫 기자간담회 자리는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한국시장 전략을 소개하고 포부를 천명하는 선포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마케팅 계획 등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이 자리에서 내년 판매 재개 첫 모델로 티구안과 파사트, 아테온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우디에 이어 폭스바겐까지 신차 출시 행사를 열고 국내 판매를 재개하면 내년 수입차 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11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수입차는 총 21만2660대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정상적인 판매를 하지 못했는데도 총 판매량이 전년보다 3.7% 성장했다. 특히 폭스바겐은 최근 글로벌 전체 판매량이 늘면서 내년 국내 판매 재개가 더욱 기대되는 브랜드다. 폭스바겐은 지난 11월 글로벌 판매량 59만 4300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1.8% 성장한 수치로 월간 실적으로 역대 최대 판매량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가솔린 모델 없는 QM3 ‘외톨이’

소형SUV 10대 중 7대 ‘가솔린’
“QM3은 도입 계획 없어”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서 가솔린 모델의 인기가 뜨겁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 라인업을 갖춘 현대자동차 코나와 쌍용자동차 티볼리, 한국지엠 트랙스 모두 가솔린 모델 판매가 디젤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도 최근 스톨닉 가솔린 모델을 출시한 가운데 아직까지 디젤 단일모델만 판매중인 르노삼성자동차 QM3은 고전하고 있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코나와 티볼리, 트랙스까지 국내 완성차업체의 소형SUV 모두 가솔린 모델 판매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코나는 지난 7월 출시 후 11월까지 판매된 2만904대 중 73.2%인 1만

5293대가 가솔린 모델이다. 쌍용차 티볼리 또한 올 들어 판매된 5만395대 중 가솔린 판매비중이 68.4%, 트랙스도 올해 11월까지 판매량 1만4991대 중 71.3%가 가솔린 판매다.

디젤모델 대비 150만~2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과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하다는 장점 덕분에 소형SUV 시장에서도 가솔린 모델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말 스톨닉의 가솔린 모델을 출시했다. 스톨닉까지 가솔린 모델을 내놓으면서 QM3 가솔린 모델의 국내 도입에 대한 르노삼성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가뜰이나 판매가 저조한 QM3만 가솔린 라인업을 갖추지 못했다기 때문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QM3은 국내 생산이 아니라 구성이 쉽지 않고, 아직까지는 가솔린 모델의 국내 도입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르노삼성의 소형SUV QM3. 사진/르노삼성

현대차, 코나 장기렌탈 참가자 모집

현대자동차가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코나 장기렌탈 시승행사인 ‘메리 코나 해피뉴이어 시승행사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과감하고 컬러풀한 디자인과 최강의 상품성으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나의 우수한 상품성을 고객들이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말 포함 4박5일간의 시승 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시승 행사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총 3차수로 나눠 진행되며, 각 차수별 200대의 코나 차량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1회차 시승은 이미 접수를 마감했으며, 이후 ▲2회차(12월19일) ▲3회차(12월26일)의 일정으로 차수별 모집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은 차수별 응모

마감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시승 희망 일정과 신청 사연, 차량 인수 지점 등을 입력해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매주 목요일마다 차수별로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연락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시승 행사는 소형SUV 1위 코나의 압도적인 성능을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컬러풀한 코나와 함께 연말연시 행복한 추억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나는 판매 개시 2달 째인 8월 4230대, 9월 5386대, 10월 3819대, 11월 4324대가 판매되는 등 4개월 연속 국내 소형 SUV 시장 최다 판매를 이어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코나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SUV 특유의 편의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천연가스 자동차는 하늘색을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송용 천연가스 보급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

아마존 손잡은 코웨이 미국서 순항

공기청정기 이어 정수기 등 제휴도 논의...“내년 수출 10%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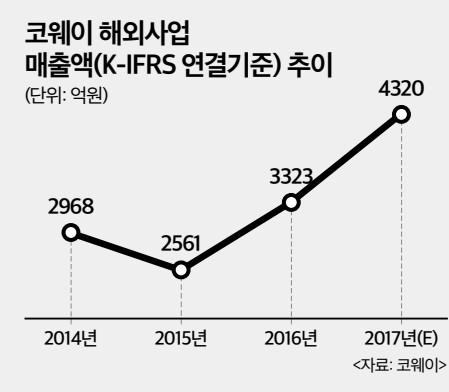
코웨이 미국 법인의 성장세가 내년 본격화 될 지 주목된다. 올해 3분기 기준 코웨이 미국 렌탈 계정수는 아마존을 통한 공기청정기 판매가 증가한 덕에 11만개를 넘겼다. 현재 코웨이는 정수기 등 여타 주력상품 제휴도 본격 논의 중이다.

14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 미국 법인은 지난달 말 라스베이거스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렌탈 서비스 추가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마존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플랫폼인 알렉사사와 연계한 북미향 공기청정기 ‘코웨이 에어메가’가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코웨이는 아마존과 제휴해 주력상품군 미국 판매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마존 알렉사와 연계된 ‘코웨이 에어메가’는 사용자가 머물고 있는 실내 장소와 해당 지역의 공기질을 비교 측정해서 실내공기 질이 떨어질 경우 자동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마존의 IT기술에 비즈니스를 접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아마존 자회사 아마존웹서비스와 코웨이가 함께 제휴해 만든 상품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렉사 같은 기능이 탑재돼서 아마존 고객이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한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서로 윈윈”이라며 “이같은 취지에서 11월 말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아마존웹서비스와 코웨이 제품군인 정수기, 비데, 매트리스, 안마의자를 두고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확대도 향후 미국 시장에서 코웨이 브랜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웨이 미국법인의

렌탈 계정수는 2014년 8만3000계정에서 지난해 10만2000개로 늘었고, 올 3분기 기준으로는 11만계정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국내 렌탈업체에선 계정수 50만개를 넘기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본다.

렌탈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코웨이 말레이시아법인의 경우 2013년 16만1000개, 2014년 18만5000개, 2015년 27만2000개, 2016년 43만1000계정을 넘어 올 3분기 기준 60만2000개를 기록한 바 있다.

코웨이 미국시장의 경우 아직 그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기청정기 외에 코웨이의 대표제품인 정수기가 자리 잡으려면 생활문화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한국의 경우 싱크대 위에 올려놓는 카운터탑 제품이 주를 이루지만 미국의 경우 싱크대 밑에 설치되는 언더싱크 제품이 주류다.

다만 언더싱크 제품의 경우 제품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만큼 AI기능을 탑재한 알렉사와 연동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존웹서비스가 코웨이의 카운터탑 정수기 제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아마존향 코웨이 공기청정기 계정 증가폭이 컸던 데다 이같은 사업 기회까지 겹치고 있는 만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코웨이 해외수출이 내년 10%가량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나벳 기자 freenb@etomato.com

“뇌기능개선제 우리가 기준약” 대응바이오 행정심판 제기

대응바이오와 종근당이 700억원대 뇌기능개선제 대조약 지위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대조약이란 복제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생물학적동등성)의 기준이 되는 약을 말한다. 해외업체로부터 도입한 뇌기능개선제 판권이 대응에서 종근당으로 넘어가자 서로 자사 제품이 대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응제약 자회사 대응바이오는 지난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롤린 알포세레이트 대조약 선정 공고 취소 및 글리아타민 대조약 지정’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타민’ 대조약을 취소하고 동일 성분 대응제약의 ‘글리아타민’을 대조약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게 요점이다. 글리아타민은 대응제약이 2000년부터 15년 동안 국내 판매하던 제품이다. 원개발사인 이탈리아 이탈리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자사 제조소에서 생산했다.

이탈리아는 2016년 대응제약과 계약을 해지하고 종근당과 글리아타민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판권 이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조약 지위를 종근당으로 변경하자 대응제약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법 기준에 위배된다는 게 대응제약 주장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대조약은 ▲신약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

사 품목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수량이 가장 큰 품목 등으로 선정된다. 종근당글리아타민이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근당은 2007년 글리아타민 복제약 ‘알포코’를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명을 알포코에서 ‘종근당글리아타민’으로 변경토록 인정받았다. 알포코와 종근당글리아타민의 주성분 동등성 입증시험(비교용출)이 근거가 됐다.

대응제약 관계자는 “종근당글리아타민은 기존 복제약(알포코)에서 이름만 변경한 제품이다. 복제약은 대조약 기준의 원개발사 품목이 될 수 없다”며 “복제약이 식약처 규정으로 인해 마치 신약(오리지널)인 것처럼 둔갑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제약 자사 제품을 대조약으로 알포코(복제약)가 허가를 받았고, 다시 알포코를 기준약으로 종근당글리아타민이 만들어 졌다는 게 요점이다.

이에 종근당 관계자는 “대응제약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근당글리아타민이 알포코와 비교용출을 통해 허가를 받았지만 원개발사인 이탈리아가 인정 받은 제조기술 대로 만든 제품이다. 원료만 바꾼 게 아니라 제조법, 제조비용 등 오리지널약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원개발사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가구업계, 체험마케팅 열풍

소비자 접점 강화 “인지도 제고에도 도움”

가구업계에 체험마케팅 열풍이 거세다. 가구 특성상 구매전 직접 체험이 어렵기 때문에 협업 공간을 통해 고객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리미엄 제품이나 주력 상품군을 중심으로 체험 마케팅을 펼쳐 입소문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주로 드라마 협찬 등을 통해 자사 가구를 홍보해온 체리쉬는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체험’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체리쉬는 최근 영화관과 협업으로 리클라이너와 가구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서울 용산, 부산 등 몇몇 CGV 상영관에 체리쉬 리클라이너를 도입한 상태다.

이와 함께 베스트루이쉐미턴호텔과도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호텔이라는 공간과 가구의 시너지 효과



CGV네드세프 용산아이파크를 '살롱5'관에 비치된 체리쉬 네스트인 리클라이너. 사진/체리쉬

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향후 오픈하는 지점들을 체리쉬 가구로 인테리어 하고, 호텔 내에 체리쉬 매장을 열어 브랜드 체험에서 구매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회사는 호텔뿐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최고의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일룸도 대명레저산업의 비발디파크와 제휴해 일룸의 대표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는 객실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소비자들이 숙박 기간 동안 일룸의 가구들을 자유롭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비발디파크 메이플동 내 스위트 타입 객실을 일룸의 가구로 구성했다. 일룸은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휴관일인 월요일을 활용해 육아 맘들의 문화, 사교 활동을 돕는 ‘맘스 먼데이(MOM'S MONDAY)’ 프로그램과 제휴해 해당 공간에 일룸 키즈가구를 비치하기도 했다. 또 남성을 타깃으로 남성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루이스클럽(LOUIS CLUB)’과 손잡고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매장에 리클라이너 소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 같은 협업에 대해 업계는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은 섣불리 구매하기를 꺼려하는데 체험 후 고객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매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브랜드 이미지 효과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중기인대회는 매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 주간을 기념해 한해를 빛낸 중소기업인들을 포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28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탄핵과 조기대선의 영향으로 5월에 열리지 못하고 전국·업종별 기업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연중 최대규모 행사인 ‘중소기업 송년연찬회’와 함께 연말에 열리게 됐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립멘 서윤덕 대표는 ‘식품 신선도 유지제’라는 아이템으로 30년 이상 기술혁신을 통해 수분흡수제, 산소흡수제, 와인세이버 등을 개발해 선별 주자인 일본과 미국에 역수출하는 등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받은 삼원액트 배광호 대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해 국제 규격의 안전 및 환경인증 획득한 게이بل

등을 생산, 자동차·디스플레이·전자 등 공장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오피스안건사 정용주 대표는 지속적 품질 개선과 디자인 개발을 통해 무용접 조립구조 책상과 탁자 등을 생산·판매해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았고, 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의 공동브랜드 키포스를 설립 및 운영하는 등 가구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문제인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어 중소기업의 안전 및 환경인증 획득한 게이블

김나벳 기자 freenb@etomato.com

토마토 아동발달연구소
child development center

ADHD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어린이 통합 두뇌 발달 위브레인

산만해요

주의력이 부족해요

집중력이 부족해요

학습이 어려워요

충동적인 행동을 해요

과잉행동을 해요

자연주의적 면역치료! 행동주의적 두뇌훈련! 체험주의적 감각치료!
의학과 뇌 과학의 결합으로 개발 운영되는 트리플 테라피 시스템!
인지 / 언어 / 운동 능력 / 주의집중력 / 사회성 / 분노·충동성 / 부정적 감정 / 읽기·쓰기 능력 / 수면장애 / 식습관 개선

| 뇌 면역 및 영양치료 (아이토마토한의원 진료에 의거) 어린이 총영양 (일명 인지탕) / 명랑음 (ADHD방/자폐방) / 알러지 토탈케어
| 감각강화치료 1) 집중치료-청지각 훈련 (토마티스) / 후각 자극법 (아로마 향기치료) / 무통 자력침법 2) 가정 내 감각강화치료
| 행동치료 (DIR Floortime) / ABLC / Think Aloud / 뉴로피드백 / 뉴로발란스 / HTS (시각각 훈련) / 심리검사·치료 / 부모교육·코칭

서울시 양천구 등촌로 230 토마토아동발달연구소 | www.tomatobrain.co.kr

문의 02-2649-0236

백화점업계, 겨울특수에 매출 '날개'

백화점3사 11월 매출 일제히 신장...롯데당 열풍 주효

백화점업계가 이른 추위와 초대형 세일을 앞세워 겨울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 가을 추석연휴 탓에 줄어든 영업일수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매출이 역진했지만 하반기 막바지 반전을 노리는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동안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각각 5.0%, 4.6%, 6.4% 매출이 신장했다.

이같은 매출을 견인한 것은 백화점3사가 일제히 진행한 '정기세일' 덕이 컸다. 높은 할인율을 내건 초대형 세일 행사에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일명 '롯데당'으로 불리는 벤치파카 열풍이 더해지며 패션 부문의 호황이 두드러졌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8일간 겨울 정기 세일을 진행했다. 특히 세일 기간 동안 총 800억원 물량의 벤치파카를 선보이며 트렌드를 주도했다. 실제 스포츠, 아웃도어, 영패션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벤치파카 물량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렸다.

그 결과 롯데백화점의 11월 아웃도어와 스포츠 부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5%, 23.5% 신장했다. 여기에 '명창 롯데당'이 광풍 수준의 인기를 끌면서 각 지점별 큰 집객효과도 톡톡히 누렸다.

현대백화점도 겨울 정기세일로 재미를 봤다. 현대백화점은 롯데백화점 정기세일 기간에 맞춰 7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10-50%



롯데백화점에서 롯데당을 구입하는 고객들. 사진/뉴스

할인행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방한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

패딩, 코트, 모피 등이 판매호조를 보이며 방한용품 매출이 전년대비 34.3% 신장했다. 상품군 별 매출은 ▲아웃도어 24.8% ▲스포츠 24.8% ▲명품시계보석 15.4% ▲남성패션 6.2% ▲영캐주얼 3.6% ▲여성패션 1.2%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아울러 '리빙 스페셜 대전'을 앞세운 다양한 가구 할인행사로 리빙 매출도 전년대비 16.9% 성장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달 450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까지 상품 할인에 나서며 11월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상품부문 별로는 식품

(F&B) 매출성장률이 24.6%로 가장 컸다. 이외에도 패션과 화장품도 각각 18.8%, 7.2% 매출이 신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식당가에 유명 맛집을 유치한 것이 젊은 고객들의 집객효과를 이끌어내는데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3사가 11월 들어 성장을 이뤄내면서 하반기 실적개선에 또 청신호가 들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예년보다 이른 추위와 '롯데당' 인기까지 더해져 의류 부문 매출이 눈에 띄고 늘었고,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위메프, '셀러마켓' 추가 변화 통해 수익창출 나서

판매 파트너가 직접 상품등록 티몬도 연말부터 서비스 방침

위메프가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방식의 판매 서비스 '셀러마켓'을 열었다. 위메프가 판매 파트너사가 MD 협의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셀러마켓' 카테고리 14일 추가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마켓 창출을 시도하면서도 고객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셀러마켓은 기존 MD가 선별해 보여주는 소셜커머스 상품 소싱 방식에 더해 판매 파트너사가 직접 등록한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방식이다. 판매 파트너들은 관리페이지에서 MD 승인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고 판매 중인 달에 대해 직접 수정하며 빠른 고객 대응이 가능하다.

위메프는 중개 방식의 셀러마켓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지원과 상품 검증 등을 유지, 기존 소셜커머스의 강점을 이어간다. 셀러마켓 상품에 고객 클레임 등이 발생하면 판매 파트너사뿐 아니라 위메프도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파트너사가 등록된 상품은 위메프 앱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생성된 셀러마켓 카테고리로 익익일(영업일 기준 +2일) 자정 업로드된다. 위메프는 사전 심사를 완화하면서도 최소 24시간 이상의 내부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선제적 제거나 미인증 상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셀러마켓 상품 배열은 기존 특가 상품과 마찬가지로 광고비와 무관하게 고객들의 평가 기반으로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상품들도 고객들에게 합격점을 받으면 추가 광고 비용 없이 노출될 수 있다.

위메프는 셀러마켓 서비스 이후, 고객 응대 등을 거치면서 단순 중개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티몬도 연말 본격적인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오픈마켓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진행중이며 연말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쇼핑 검색과 구매 등에 편리함을 높이고 오픈마켓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고도화 단계를 '마켓플레이스 2.0'을 선보인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롯데면세점, 파트너사와 상생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진행

롯데면세점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와의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60개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롯데면세점은 파트너사를 상대로 판촉행사 비용 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대금 결제 기한을 개선 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는 김태호 롯데면세점 상품전략 부문장을 비롯한 관련 부문 임원들과 60개의 파트너사를 대표하여 권오섭 메디힐 엘엔피코스메틱 대표 등 9개 브랜드 대표들이 참석했다.

롯데면세점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파트너사 선정,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과 운용 ▲판촉행사비 및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적절한 기준 설정과 충분한 협의 보장 ▲공정한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

계약서 적용 강화 ▲결제 대금지급 기일 및 결제수단 개선 등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상생 실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공정거래 협약 파트너사는 롯데면세점이 진행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첫 대상이 되기도 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중소중견 납품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롯데면세점과의 파트너사는 수출입은행에서 납품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롯데면세점의 납품 결제대금을 수출입은행이 파트너사에 직접 지원 할 수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CSR 위원회'를 신설해 파트너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동등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농심, 10년간 '사랑의 신라면' 기부

임직원 해피펀드 조성 소외계층에 3천박스 전달

농심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10년간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 13일 서울 동작복지재단과 '사랑의 라면 전달식'을 갖고 신라면 3000박스를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부터 10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지속하고 있는 나눔활동으로 지금까지 총 2만 6000박스의 라면을 소외계층과 나눴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신라면은 농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목적 재원인 '해피펀드'를 통해 마련된 것이며 이 라면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심 '해피펀드'는 2007년 5월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 조성된 기금으로서 매월 자신이 희망한 금액이 월급에서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모금된다.

한편 농심구미공장도 지난 13일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구미시에 신라면 200박스(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농심 서상복 공장장은 "나



농심과 동작복지재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심

음의 체감온도도 더 떨어지는 추운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전달 소감을 밝혔다. 농심 구미공장에서는 매년 구미시에 라면 기탁뿐만 아니라 송정동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인 구미상록학교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랑의 쉼터 장애인들에게 매월 텃밭 가꾸기와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이웃과 나누고 행복을 추구하는 농심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지구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앞서갑니다

지역난방사업
열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온수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선진 난방시스템

지역냉방사업
물냉방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그 지역일대에 온수 또는 냉수를 공급하는 냉방시스템

전력사업
중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사업 부문의 확대·강화

신재생에너지사업
소각열, 매단가스 등을 회수해 열병합발전 및 냉난방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eco energy
for everyone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www.kdhc.co.kr

내년 아파트 시장, '조정·양극화' 심화

분양가 인상 제한 가능성... 인기·비인기 단지 격차 확대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시스

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의 조정현상과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건설사들의 분양가 책정 고민이 커지고, 수요자들도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더욱 꼼꼼히 따지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가...

1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부동산114 서울 아파트 분양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연간 15.8%까지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올해는 1.8%(12월1주까지 집계 기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 만에 최저치다.

시장에서는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에서 분양가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분양가 상승이 둔화된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자 눈치를 보는 건설사가 늘면서 공격적인 분양가 책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아파트 분양가 인상도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 지역의 분양가 하락 가능성은 낮지만 분양가 상승을 견인할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올해처럼 HUG와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에서 간간히 분양가를 심사하고 대출규제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성도 떨어질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공격적인 분양가 책정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승인) 예정물량은 32만여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아파트 집담대출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37만8276가구) 보다 분양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3.03대 1로 지난해(14.35대 1) 보다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지역별 청약출렁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세종시 등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지만 충남은 평균 경쟁률이 0.61대 1에 그쳤다.

내년에는 분양 시장의 양극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이용이 어려워질수록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 동장 사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에 청약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8·2대책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전체 수요는 줄었지만 인기단지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당첨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내년에) 다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확대되지만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한진 기자 hjc@etomato.com

반포3주구 '기대반 우려반'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재돌입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재돌입한 가운데 조합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일찌감치 공개적으로 관심을 나타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난 10월 처음 열린 설명회에 참여했던 건설사 수보다 2곳이 늘었다.

다만 다음달 29일 마감인 실제 입찰까지 현대산업개발 외 다른 건설사가 입찰서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한 조합원은 "이번 설명회에 참여 건설사 수가 늘었다 해도 최근 정부의 재건축 시장 제재와 단속 강화로 반포3주구 수주전에 대한 열기는 크게 줄었다"며 "이번 입찰 과정에서도 지난해 처럼 건설사 대

부분이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에 새로 현대엔지니어링과 SK건설 2곳의 대형사가 새로 관심을 보인 만큼 현대산업개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한 치열한 수주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마감된 반포3주구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산업개발 1곳만 응찰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5일 시공사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반포3주구는 예정 공사비가 8087억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사업 중 하나다. 현재 기존 전용면적 72㎡ 단 일형 1490가구가 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에 발전업계 '희비'

원전·석탄 '울고' LNG '웃어' 두산·SK·포스코·GS, 셴법 복잡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원전·석탄이 울고 LNG는 웃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예정된 석탄발전소는 LNG 발전 등으로 대체된다. 두산, SK, 포스코, GS 등 발전업계의 표정이 제각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하 제8차 계획안)'을 보고했다.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로 줄인다. 이와 함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 가동도 중단한다.

원전에 원자로 등을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은 고민이 커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미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엔 풍력과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47.2GW 규모의



지난 6월 영구 정지를 하게 된 고리 원전 1호 사진/뉴스시스

설비 확충안이 포함됐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수급계획에 맞춰 경영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은 현재 61기에서 오는 2030년 57기까지 축소된다. 석탄발전소를 기대했던 에너지업계는 희비가 갈렸다. SK가스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SK가스는 당초 추진했던 당진에코파워 2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포스코에너지는 한시름 덜었다.

삼척포스파워는 기존 계획대로 석탄발전소로 짓게 됐다. LNG 발전 여건의 부적합성과 주민들의 건설 요청, 560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등이 고려됐다.

SK E&S, GS EPS 등 LNG발전업계는 석탄 발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전환에 정부가 가산점을 준다고 해 수익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일본 배터리 연합에 삼성·LG 초조

중국 보조금 기대했지만 파나소닉-토요타 협력 '변수'

국내 배터리업체가 '일본 연합'이라는 변수를 맞았다. 한중 정상회담으로 중국의 배터리 보조금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자, 이번에는 업계 선두 파나소닉이 토요타와 손을 잡고 격차를 벌일 태세다.

일본 파나소닉과 토요타는 지난 13일 현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차동차(EV)용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V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을 포함해 자원 조달 및 재활용까지 폭 넓은 협력이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내 배터리업체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파나소닉은 이미 전기차 출하량 기준 1위 테슬라에 차량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토요타 제휴까지 더해지면 큰 폭의 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 토요타는 최근

중국 업체가 개발한 전기차를 현지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합작법인 형태를 빌리려면 토요타를 통해 현지 업체 차량에 탑재되는 파나소닉 배터리도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진다.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2위와 5위를 기록한 LG화학(14.7%)과 삼성SDI(6.7%)는 최근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9월 기준 점유율이 7.4%, 4.2%까지 떨어졌다. 순위도 삼성SDI는 5위를 유지했지만, LG화학은 중국 CATL(17.7%)과 BYD(7.9%)에 밀려 4위로 주저앉았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목록에서 번번이 누락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장을 측면에선 여전히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자국 시장을 갖춘 중국의 추격과 대형 완성차 브랜드와 협력해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일본의 행보는 분명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기중 기자 haregg@etomato.com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가 있습니다

국민 부동산 나침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 주요 한 개 입력으로 다보기**
한 번의 주소검색으로 시세, 실거래, 관리비, 공시가격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보여드립니다.
- 시장동향**
각종 부동산에 대한 가격동향을 알려드려서 부동산의 경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 마이 홈 플래너**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별 최적의 마이 홈을 찾아드리는 기능입니다.

- 부동산 가격정보**
아파트 시세 및 실거래가(매매, 전세, 월세)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거래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우리 아파트 관리비**
적정 관리비 문화 선도를 위하여 아파트별 관리비를 유사 단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아파트 매물찾기**
한국감정원의 우수 협력공인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에서 "한국감정원" 입력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25호(2017.9.19)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튼튼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계약해지 후 신계약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 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 주세요

080-295-8080

비상통로 짐 ‘적재’에 화재경보 ‘먹통’

호텔 15곳 소방특별조사...4곳서 위반사항 12건 적발

서울 호텔들이 화재시 대피 루트인 비상계단과 대피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6일 중구와 강남구 호텔 15곳에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4곳에서 위반사항 총 1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구에는 호텔이 7곳, 강남구는 57곳이 있으며 본부는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할 호텔을 무작위로 골랐다.

강남구 A호텔은 2층 음식점의 피난계단 부속실에 식자재 적재함, 조리도구 등을 마구 쌓아나 피난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해냈다. 부속실(전실)은 불이 났을 때 긴급 대피하는 안전 공간으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며, 어떤 장애물도 없어야 한다. 또 이 호텔은 밧줄 타고 건물을 내려가도록 각종 도구를 담은 완강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같은 지역의 B호텔은 1·2·8층 피난계단 부속실에 호텔용 카드와 침대시트를 쌓아나 연기를 막는 제연덮개 사용에 지장을 주고, 비상구 통로를 막아냈다. 강남구 C호텔은 방염 성능이 없는 커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6층 비상구 및 복도 통로에 철제 집기류와 청소도구 등을 적치해 대피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중구 명동의 한 호텔은 화재경보장치가 정지 상태였다. 이외에도 완강기 앞 책상 설치, 공기호흡기 사용 불능, 유도등 적정성 불량 등 경미한 사례들도 적발 대상이었다.

본부는 호텔들을 단속하는 한편, 투숙객에



서울 용산구 남산 하얏트호텔의 직원과 요리사가 지난 11월10일 호텔에서 화재사고 대비 현장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적발 사례처럼 대피를 방해하지는 않더라도 호텔 구조 자체가 위험한 데다가, 투숙객의 행태가 사고 확률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호텔 객실은 밀폐 구조이며 층별 객실배치는 건물의 경제적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보 설비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하면 불이 난 사실을 알리기 힘들다. 게다가 대다수 사람에게 호텔은 집이나 직장·학교처럼 지속적으로 접하지 않고 일회적으로 묵는 공간이다. 내부 구조, 대피경로, 대피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청년들의 트렌드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연말연시 내지 각종 기념일에 친구나 연인끼리 호텔에서 1박 2일 파티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분위기를 띄우는 촛불, 음주 후 흡연으로 인해 불이 날 수 있다.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숙박시설 화재는 156건 일어나 7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당했다.

본부는 내년 2월까지 서울 객실 수 150개 이상인 대형호텔 104곳,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 164곳, 대형화재 취약 대상 1228곳, 화재경계지구 21곳, 노인요양시설 345곳에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서초구, R&D 전략지로”

구 새청사에 연구시설 공공행정 기능도 강화

서울시가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위에 공원과 오피스텔을 조성하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근처 서초구청사를 복합개발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은 마포구 노고산동 112-5번지 일대에 있는 역상부 1만7356㎡ 면적 부지에 지역 특성에 알맞은 복합역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강대역 상부도 경의선 지하화 및 숲길공원 조성 이후에도 보도블럭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경의선을 따라 쪽 이어진 숲길공원을 끊고 있었다. 이번 계획 가결로 서강대역 복합역사에는 오피스텔 2개동이 지어지고 외부 공간에는 경의선 숲길공원과 연계한 공

원이 들어선다. 지역 주민과 청년을 위한 청년교육센터와 도서관,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도 지어진다. 공동위는 서초구 서초동 1376-3 일대(서초구청사)에 대한 ‘양재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서초구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한 건축물이라 역세권 활력을 저하시키며 공공행정과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획 가결은 서초구청사를 리뉴얼해 공공청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새 청사에는 R&D(연구개발) 시설과 연구소도 들어선다.

공동위는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대의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업 대상지는 2023년 개통하는 신안선의 독산역이 들어설 지역이다. 이번 가결로 주거지, 공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미래 역세권이 활성화되고, 근처 우시장에 특화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사진/서울시

박원순·조희연 “현장실습 학생 인권보장”

서울시·시교육청·고용노동청, 특성화고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이 서울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3개 기관이 함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박 시장은 “최근 발생한 현장실습 학생들의 사고는 어쩌면 예정된 일이기도 했다”며 “그동안 우리사회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뿐 아니라 현장실습도 중요한데, 우리가 대비를 못 했다”며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현장실습학생 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업무협약’에 참석한 박원순(왼쪽 세번째) 서울시장,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 나영돈(오른쪽 네번째) 서울고용노동청장이 특성화고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시와 시교육청, 고용노동청은 기관별 강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는 신고·상담을 위한 핫라인 운영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강화, 실습생 조기 복교 선택권을 보장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우수 사업장을 발굴하고, 업체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이날 조희연 시교육감은 그간 교육청으로써 느낀 어려움을 토로하기

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기업에 보내는 입장”이라며 “저희 권한 밖 일이 많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장실습 참여 기업들은 대부분 교육청 관할을 벗어나 시의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근로감독권 역시 고용노동청의 고유권한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강서·양천구, 농아인 쉼터 열어 ‘농아 어르신’ 휴게공간 마련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가 나란히 농아어르신을 위한 농아인 쉼터를 문 열었다.

14일 강서구에 따르면 15일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물품공사 강서지사 4층에 강서수어통역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농아인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강서수어통역센터는 기존 시설의 4배 규모인 200㎡의 공간을 확보하여 농아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서구는 복지관 및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불편한 노년층 농아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자조모임, 바둑교실, 한글교실, 건강체조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화교육을 확대해 자원봉사 인력을 육성하며, 수화통역 지원과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농아인 자립을 돕는다. 특히, 센터 내 농아인쉼터는 각종 시청각 자료 및 안

마의자, 회의 공간 등을 마련하고 농아인들이 정보 교류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양천구는 수화통역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아어르신을 위한 농아인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비 1억원 지원받아 수화통역센터 환경을 개선하고, 농아인쉼터를 조성해 20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강서구의 농아인 인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3479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은 2671명으로 77%에 달한다. 양천구는 2204명으로 이 중 77.6%인 1711명이 60세 이상의 농아어르신이다.

올해 3월 노원구에 농아인쉼터가 서울 최초로 문 열었으며, 지난 9월에는 도봉구에 만들어지는 등 서울시는 25개 모든 자치구에 농아인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자동차 그러나 보행자 사고 OECD 1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월: 사회책임 화: 국미연
수: Health 목: Book
금: 스타트업리포트/게임

Game

PC온라인게임 전성기 부활 노린다

피파온라인4·에어 첫 CBT 시작...내달 25일 천애명월도 OBT



넥슨 피파온라인4. 사진/넥슨

학생들의 방학과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은 게임업체들에겐 성수기로 통한다. 이 시즌 많은 신작 PC온라인게임의 출시 및 테스트가 이어지는 등 게임업체들은 게임붐을 조성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 밀려 신작이 뜸했던 PC온라인게임 시장에 유력업체들의 대작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신작 PC온라인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정식 서비스와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성수기 특수를 누리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는 넥슨의 '피파온라인4'가 이날 첫 테스트(CBT)를 시작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블루홀의 신작 PC온라인 '에어'도 전날 CBT에 들어갔다. 내년 1월25일에는 넥슨의 PC온라인 '천애명월도'의 정식 서비스가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배틀라이트(넥슨),

'프로젝트TL(엔씨소프트)' 등의 신작도 출시를 위해 마지막 담금질이 한창이다. 앞서 그래픽의 '라그나로크 제로'와 넥슨의 '니드포스 피드 댓지' 등의 신작 게임이 각각 지난 6일과 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명작들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피파온라인4'의 테스트가 20일까지 진행된다. 테스트를 통해 전작에 비해 보다 사실적으로 구현된 선수와 공의 움직임은 물론 한층 정교해진 인공지능, 개인별 전술지시 기능 등이 피파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게임은 '지스타'에서 첫날 3400명이 시연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넥슨은 내년 월드컵 개최 이전에 출시해 월드컵 열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17일까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에어는 기계문명과 마법이 공존하는 스팀펍 세계관을 내세운 작품이다. 하늘과 지상을 넘나드는 입체

적인 플레이를 특징으로 내세운다. 지스타에서 20대20 진영전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기도 했다.

내년 1월 출시되는 넥슨의 천애명월도는 무협소설 대가 고훈의 원작 소설 '천애명월도'의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개발된 PC MMORPG이다.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액션이 특징이다. 중국 텐센트 오로라 스튜디오가 개발했다. 중국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해 현지 온라인게임 순위 상위권에서 꾸준히 자리에 오르며 작품성을 검증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시리즈의 차기작 '프로젝트TL(더 리니지)'가 PC MMORPG로 개발되고 있다. 프로젝트TL은 앞서 개발 중이던 온라인게임 '리니지이터널'의 리소스를 가져오면서 언리얼엔진4로 개발 엔진을 교체, 방향성을 변경한 작품이다. 내년 출시가 목표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2.0 버전 통해 장기화 발판 마련

2차 전직·신규 영지 코스튬·성장콘텐츠 등 추가

넷마블게임즈가 대표작 '리니지2 레볼루션'의 2차 전직, 최고레벨 상향 등 대규모 콘텐츠를 추가하며 흥행을 이어나갈 장기화 발판을 마련했다.

넷마블게임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의 출시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 '레볼루션 2.0'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레볼루션2.0은 ▲2차 전직 ▲신규 영지 ▲최고레벨 상향(260→320) ▲보물파수꾼 ▲코스튬·뷰티샵 ▲신규 성장 콘텐츠(탈리스만) ▲시공의균열 악몽모드 ▲장신구 UR등급 등을 담고 있다. 레볼루션에서 두번째 진행되는 전직은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캐릭터 직업을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직업에 따라 스킬, 전투 스타일이 대폭 달라진다. 2차 전직은 271레벨부터 가능하며 궁극기(필살기) 액티브·패시브 스킬이 각 1종씩 추가된다.

신규 영지 '아벤토'는 용족 몬스터들이 등장하는 영지로 3개의 지역으로 구성됐으며 최고레벨은 260에서 320으로 상향됐다. 보물파수꾼은 오픈월드에서 고급 아이템만을 파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정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보물파수꾼을 만날 수 있으며 보물파수꾼까지 처치하면 고급 아이템(마프의 가호, 강화 주문서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코스튬과 뷰티샵은 이용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의상, 머리스타일을 바꾸는 시스템이며 신규 성장 콘텐츠 탈리스만은 강력한 능력치나 특수한 효과를 제공하는 부적류 아이템이다. 탈리스만

은 효율에 따라 일반, 특성으로 구분하며 2차 전직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파티 던전 '시공의 균열'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악몽모드'가 추가되며 장신구 UR 등급이 새롭게 들어간다. 조신화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레볼루션2.0은 외형뿐만 아니라 전투 스타일, 성장 방식 등 게임 전반에 변화를 주는 업데이트"라고 말했다.

넷마블은 레볼루션의 서비스 1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신규 콘텐츠 보물파수꾼을 하루 10회 이상 처치한 70명에게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노트8'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이날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또 17일까지 게임에 접속하면 매일 보상을 제공하며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로 축하 케이크를 만들면 'UR등급 장신구' 제작에 필요한 아이템을 증정한다. 아울러 31일까지 쿠폰변화(REVOLUTIONIST)를 입력하면 인기 아이템(고급 스킬 페이지 선택상자, SR등급 장비 선택상자, 스킬포인트)을 지급한다.

넷마블은 신규 서버 '데켄'을 오픈하고 이날 31일까지 캐릭터 성장에 필요한 혜택을 다량 지급하며, 전체 서버에서는 오후 12시부터 24시까지 필드 경험치, 아이템 드랍률이 높아지는 핫타임 이벤트가 열린다. 또한 주사위를 던져 보상을 획득하는 '네로의 주사위' 이벤트, 크리스마스 배지를 모으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레볼루션 1주년을 맞아 넷마블은 공식 사이트를 개편하고 공지사항, 이벤트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내에 처음 선보인 레볼루션은 언리얼엔진4를 적용한 고품질 그래픽과 초대형 오픈월드, 수천 명이 함께하는 실시간 대규모 전장 등을 내세운 모바일 MMORPG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 주목받는 게임 ●
넥슨 '오버히트'

120종 영웅 역동적 연출...매출 4위



서비스 3주차에 접어든 오버히트는 국내 애플장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매출순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3주차 서비스에 접어든 오버히트는 국내 주요 애플장터에서 매출 순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버히트는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장르로, 언리얼 엔진 4를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풀 3D 모바일 게임을 표방한다. 또 시네마틱한

스킬 연출을 보유한 120여종의 영웅 캐릭터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스토리 컷신이 가장 돋보인다. 오버히트는 그동안 SD 사이즈로 데포르메한 캐릭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했다.

120여종의 영웅들이 전투에서 힘을 이루는 '오버히트 스킬'을 통해 더 화려하고 전략적인 전투를 구현했다. 또한 타겟 지정 기능이 특정

이다. 타겟 지정은 공격 대상을 지정해 일점사하는 기능이다. 체력이 약해진 적, 혹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서포터를 노리는데 주로 사용하며 이용자가 선택한 상대를 집중 공격해 활용하면 전투에 큰 도움이 된다. 오버히트는 멀티 히어로 RPG 장르에서 보기 드문 오픈 월드인 '미지의 땅'에서의 진영 간 대립과 진영전을 핵심 콘텐츠로 선보였다. 하이퀄리티 캐릭터 및 콘솔급 전투를 연출해 만족감과 함께 각각의 영웅들이 가지는 고유의 스토리라인, 이를 실감나게 표현한 배경음악 또한 게임의 몰입감을 한 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사 넷게임즈와 퍼블리셔 넥슨은 전작인 '히트'로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2015년 출시된 모바일게임 시장의 판도를 바꾼 '히트'의 강점은 후속작인 '오버히트'에 자연스럽게 녹여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사진/넷마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조선조선
코리아

산업현장 중대재해,

원청과 하청이 함께 할 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일 철강 양강 부상, 구조조정·수요개발로 대응”

“올해보다 내년이 걱정...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되면 수출길 막혀”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2018년은 한국 철강사의 50주년인 되는 기념비적 해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입 규모는 세계 4위(2016년 기준)이며,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철강 지도는 1000여곳의 철강업체를 자랑하는 강국으로 변모했다. 산업화로 대변되는 고도 압축 성장기의 근간 또한 철강이었다. 화려했던 영광을 뒤고 하고 철강은 2010년 이후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중국은 특유의 물량과 가격 공세로 과잉공급의 진앙이 됐다. 여기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G2의 공세에,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로 한국 철강은 갈 곳을 잃었다. 내수에서는 주요 공급처였던 조선과 건설의 침체가 직면해 있다. 한국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의 송재빈 부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한국 철강 미래에 대해 조망해봤다. 철강협회는 1975년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 철강업계를 돌아보고 내년 업황을 전망한다면.

정치·경제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도 영향을 줬다. 무역협화와 철강협회간 통계가 약간 다르지만 대략 국내 수출기업의 48%가 보호무역주의 규제를 받는다. 굉장히 많은 숫자다. 중국 다음이다. 그런 와중에 철강업계가 잘 견뎌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예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전망됐는데, 다행히 파이프 부문에서 선방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374만톤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350만톤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올해 대비 수출이 11월까지 329만톤, 지난해보다 4% 정도 줄었다. 내년 미국시장 수요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안)가 발동되면 값이 막막해진다. 미국이 232조를 거론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다소 과하게 불합리성을 내포하면서도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국 불황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이다.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의 과잉공급과 저가 철강재는 업계를 괴롭히는 최대 난제다.

세계적으로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됐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12월 '철강글로벌포럼'이 발족했지만 중국이 참여를 거부했다. 지금 중국은 공급과잉 문제와 함께 저가·불량 철강재 생산이 많다. 저가 철강협회 부회장이 되고 가장 역점을 둔 것도 국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중국산 저가 철강재 문제를 제기해서 국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국제적인 비난을 의식하고 자국 철강업을 위해서라도 공급과잉과 저가 철강재 문제를 자체 해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능력이 안 되는 제철소를 정리해 진짜 대표선수들만 남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높아



지난 1월10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7 철강업계 신년회'. 사진 왼쪽부터 송재빈 부회장, 손봉락 TCC동양 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권오준 한국철강협회장(포스코 회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김청수 동부제철 사장. 사진/뉴시스

진다. 우리가 진정 우려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철강업계도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대형제철소부터 중소기업까지 독과점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합종연횡이든, 협력하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H형강, 후판, 파이프 등 집중분야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수요개발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 포항 지진만 봐도 학교와 아파트 등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았다. 내진 설계가 안 된 아파트, 도심에 있는 5층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안전의 문제다. 이런 시설물을 보강할 때 내장재로 보강하기보다 H형강 등으로 외부를 보강하

이고, 후판은 적자를 보다가 이번처럼 가격을 올려서 겨우 유지하는 형편이 될 것이다. 가장 슬기로운 방법은 새로운 후판 수요를 발굴해 내수를 확장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국 이 문제도 구조조정과 연결된다. 선제적이고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탈원전 등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철강도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철강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국내 산업계에서 둘째로 많다.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15% 정도다. 고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전기로는 그보다는 적다. 다만, 우리나라 고로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훌륭하다. 포스코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용광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적 고로다. 현대제철의 기술력도 우수하다. 이런 기술을 가진 철강사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물론 불을 때는 데 아예 연기가 안 날 수는 없지 않겠나. 환경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 철강사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감한 문제다. 일부는 미리 준비해서 대응하는데, 준비가 덜 된 회사도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은 팔로우업해 나가야겠지만 실제 상황을 본다면 어려운 면이 있다. 최저임금 제도를 완비하는 게 먼저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지원하려고 내년 3조원을 집행한다고 한다. 이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회사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도 소중한 자원이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쳤으면 좋겠다.

앞으로 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차별화가 정말 중요하다. 남이 못 만드는 것을 만들어 비싸게 팔아야 한다.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이 핵심이다. 미국은 철강왕 카네기를 배출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어렵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다. 일본도 고베제강 사태가 터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져 정교한 기술과 장인정신의 맥이 끊기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 틈을 노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철강협회는 앞으로 철강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그게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답은 차별화...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이 경쟁력”

는 게 더 안전하다. 교량도 국지성 호우가 닥치고 홍수가 생기면 보강을 해야 하는데, 기존 콘크리트로 하면 타설을 하고 굳 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보수가 어렵다. 하지만 철강을 가지고 A타입, B타입 등으로 모듈화를 하면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하고 금방 용접해 쓸 수 있다. 당분간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 추세고, 수출도 보호무역주의 여파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철강 수요개발이 필요하다.

철강업계가 하반기 후판 가격을 올렸다.

불황을 겪는 조선업계는 가격인상에 합의했으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다른 업종과의 협력은.

세계적인 컨설팅사들이 낸 보고서를 봐도 당분간 조선업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 조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

혜택도 보장도 길어야 안심이죠!
내 인생, 끝까지 행복하게

100세시대 종신보장, 생명보험이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첫 은행
since 1899

우리은행

세계가 우리의 팬입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 문화, 더 큰 세계에서 금융 한류를 이끌어하겠습니다



위비뱅크
음성인식/이뱅킹부터 간편한 송금, 대출, 환전, 음악방송과 게임까지! 쉽고 재미있는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톡
10개국어 실시간 특번역, 귀속알, 평메시지, 환전, 특특 보내기, 더치페이 등 스마트한 모바일 메신저



위비멤버스
우리은행, 우리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로바로! 달콤한 꿀머니가 쏟아지는 통합멤버십 서비스



위비캠
움짤캠, 보정, 필터, 스티커, 롤리팝까지! 즐거움이 가득한 위비톡 전용 셀카 APP